

April
2010. 4

3D 홀 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각은 미래 /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 전가차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0년 4월호

발 행 인 이인화 · 김용웅

편 집 위 원 이재관, 권희태, 조경연, 맹부영, 이인배, 한무호, 신동호, 김양중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김윤아, 권덕희

경제일지 하광학, 김범수, 박용진

외 부 집 필 진 이근형(디지털타임즈), 장진(경희대학교), 이덕규(충남테크노파크)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8 팩스(041) 840-118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3D 홈 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3
FOCUS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15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 전기차	23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37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및 물가	7. 건설 및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7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1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8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8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3D 홈 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이 근 형 | 디지털타임즈 기자

실사(實寫)는 실물(實物)이나 실경(實景) 등을 그리거나 찍는 것을 말한다. 또 실감(實感)은 실제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 또는 그 감정을 표현한다. 이 단어들은 거짓 또는 가짜와 대비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풍겨진다. 또 단어 자체가 '좋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인류는 보다 자연에 가까운 실제의 모습을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류문화 유산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 김홍도의 풍속도 같은 작품들은 우리의 일상세계를 담아 왔다. 하지만 사물의 본모습 그대로 눈앞에 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을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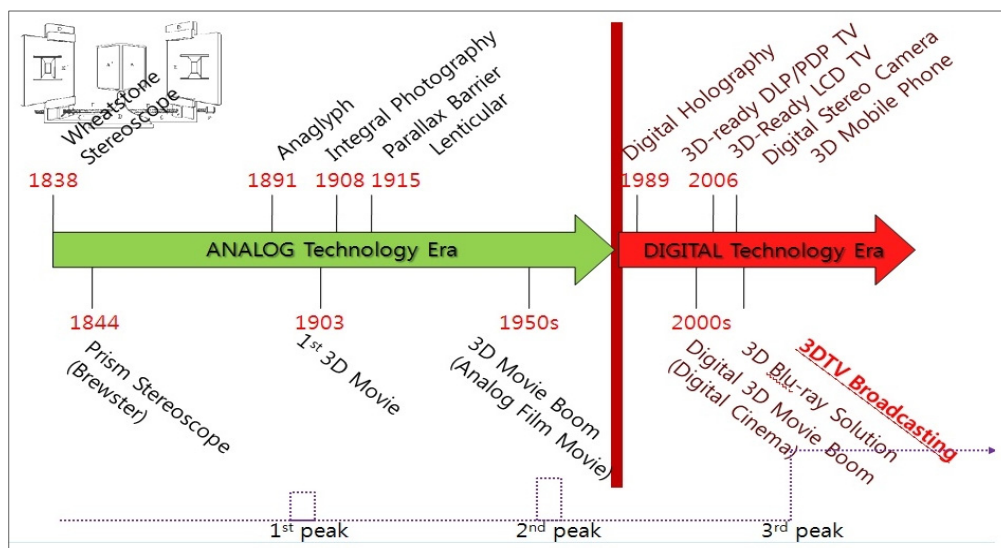
2010년 인류가 지난 수 만년 동안 꿈꿔왔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3D 홈(Home)'이라 불리며 3차원 입체영상을 우리의 거실에서 두 눈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실감'이 '다가온 미래'가 됐다.

200년 도전의 3D 역사... 2010년 다가온 미래

3D는 이미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1833년 영국의 발명가 찰스 휘스톤이 두 개의 간단한 도형을 하나는 왼쪽 눈과 다른 하나는 오른쪽 눈이 바라본 모양으로, V자 형태로 배열된 두 개의 거울이 각기 하나의 도형을 비추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장치를 '입체경(Stereoscope)'이라고 불렀다.

이후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기술을 만들면서 3D는 첫 번째 기회를 맞았지만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실패했다. 1950년대에는 65편의 3D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3D 시대가 올 듯 했지만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3D 비호감’에 막혀 성공하지 못했다. 두 눈의 시차를 이용한 3D 기술은 당시에는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고 사람에 따른 개인차를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D 기술 발전



3D가 기술적 한계에 막혀 주춤하는 사이에 2D가 인류의 꿈을 대리만족 시켜왔다. 1895년 에디슨과 닉슨이 세계 최초의 영사기 ‘키네토스코프’를 개발하고 같은 해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D 기술은 가정으로도 파고들어 TV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게 된다.

가정 극장 시대를 연 TV의 역사는 100년에 근접하고 있다. 1929년 흑백 TV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69년까지 흑백 브라운관 TV의 시대가 이어졌고, 1970년 컬러 TV의 등장과 함께 20년 이상 컬러 브라운관 TV가 가정을 대표해 왔다. 이후 TV 시장은 1994년 LCD라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앞세운 평판 TV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05년부터 시작된 LCD와 PDP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가격 급락으로 시작된 평판 TV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TV 기술의 진화

□ 단순 시청형 오디오/비디오 방송서비스에서 실감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



지난 100여년을 이어온 2D 평면영상의 시대가 올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제임스 카메론의 3D 영화 ‘아바타’의 대 흥행은 기술로만 다져온 3D 시장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연구 상태에 있던 3D가 TV 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세계 1위의 TV 사업자인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의 윤부근 사장은 “3D 하드웨어와 콘텐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극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3D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올해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3D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2010년이 가정에서 3D를 즐기는 ‘3D 투 홈(3D TO HOME)’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업체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CEO 제프리 카젠버그도 “올해 제작하는 3편의 영화를 모두 3D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3D 영역이 가정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가정용 TV 5대 중 1대는 3D

3D TV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2억대 가량의 TV 중 LCD TV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2005년만 해도 브라운관 TV가 ‘왕좌’를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내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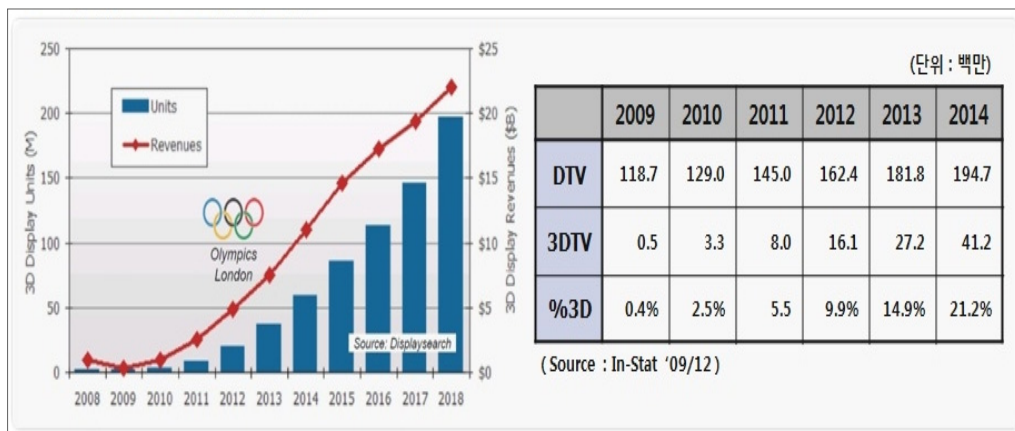
지난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LED 백라이트를 사용한 LCD TV인 ‘LED TV’도 1년

만에 일반 LCD TV의 대체제로 부상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지난해 LED TV 시장이 200만대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판매한 LED TV 만도 260만대에 달한다.

3D TV도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는 3D TV 시장이 올해 123만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전체 TV 중 0.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내년에는 412만대, 2014년에는 2,540만대로 전체 TV 중 10%를 차지하고, 2018년에는 6,359만대가 판매돼 전체 TV 중 2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이내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TV 10대 중 2대가 3D 입체영상을 지원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은 3D TV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빨라 2014년 미국 가정 4가구 중 1가구가 3D TV로 시청을 하고, 유럽 가정의 15%에 3D TV가 보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보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5년 이후 LCD TV가 폭발적으로 늘고 지난해 LED TV가 당초 예측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처럼 3D TV의 폭발력은 클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3D TV 판매 목표를 공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 4개사만 합쳐도 600만대를 훌쩍 넘어 시장조사업체의 전망을 무색케 한다.

세계 3D TV 시장 전망



이에 대해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올해 우리가 잡은 3D TV 판매 목표만도 시장 전망치 보다 많은 200만대”라며 “시장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이 3D 폭발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D TV 대중화의 기폭제... 3D 솔루션

3D TV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이전과 다르게 3D 솔루션을 중심으로 환경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3D TV 보급의 핵심인 3D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D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바타’의 성공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올해에만 3D 타이틀이 70개 이상 출시되고, 3D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이 올해 9,200개에서 내년 2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D TV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3D 방송의 경우 각국들이 앞 다퉈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디렉TV는 올 6월 위성 3D 방송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 컴캐스트는 올 4월 케이블을 통한 스포츠 이벤트 3D 시험방송을 한 뒤 내년 말에는 풀HD 3D 방송을 송출할 방침이다. ESPN은 6월 남아공월드컵 생방송을 포함해 85개 프로그램을 3D로 방영할 예정이고, 디스커버리는 아이맥스·소니와 공동으로 24시간 3D 채널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B스카이B가 올 하반기 일반 대상 3D 위성 서비스를 준비중이고, 오렌지는 3월 내부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15개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방송을 시작한다. 일본 BS11도 2007년부터 매일 15분씩 3D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10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고화질 3D TV 실험방송이 시작된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3D 실험방송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상파DMB, 모바일 IPTV를 통한 3D 실험방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3D 핵심기술의 표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3D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고화질멀티미디어인터페이스(HDMI) 1.4규격이 마련됐고, 지난해 연말 3D 블루레이의 표준도 완료됐다. 방송도 조만간 표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기술의 표준화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3D 기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3D 홈시어터 등 가정용 AV기기는 물론 3D PC, 3D 휴대폰 등 관련 기기들의 보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3D 거부감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3D 콘텐츠 제작기술이 기존의 한계인 피로나 어지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아바타의 성공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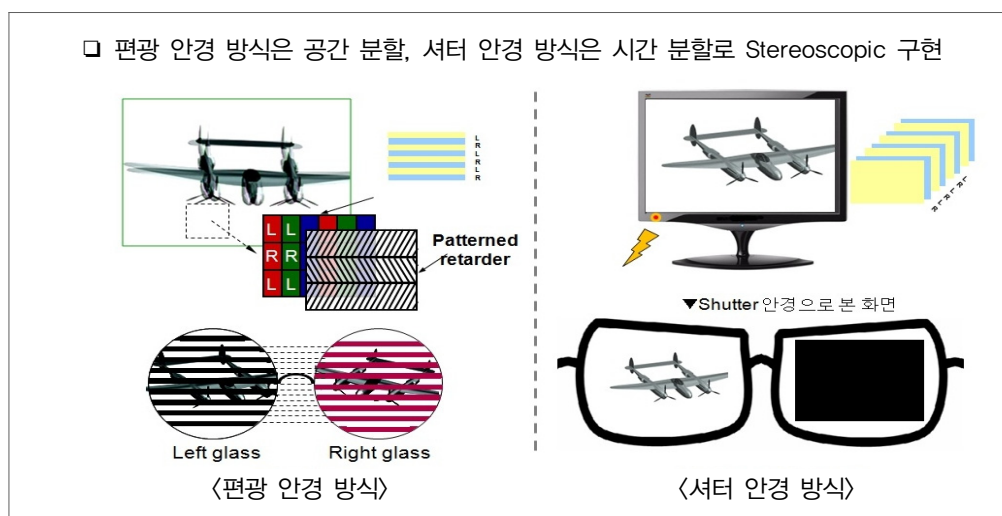
개선된 콘텐츠 제작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3D 제작기법이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아바타는 이를 뒤로 빼 어지럼증을 최소화했다. 또 고속 액정기술과 TV 업체들이 2D 콘텐츠를 3D로 전환하는 기술이 제품에 기본 탑재해 3D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상당부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착용이 불편했던 3D 안경기술도 무게와 착용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권희원 LG전자 LCD TV 사업부장은 “3D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어지러움을 최소화한 수준 높은 3D TV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3D 시대의 핵심 콘텐츠인 스포츠에 열광하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3D TV로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3D TV 홀로그램이 목표... 당분간 안경식이 대세

3D TV는 흑백 브라운관, 컬러 브라운관, 평판 TV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4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3D TV 기술은 양안시차를 이용한 안경 방식으로 시작해 양안시차 무안경 방식의 3D를 거쳐 시각적 피로도를 없앤 무안경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홀로그램이 차기 3D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D TV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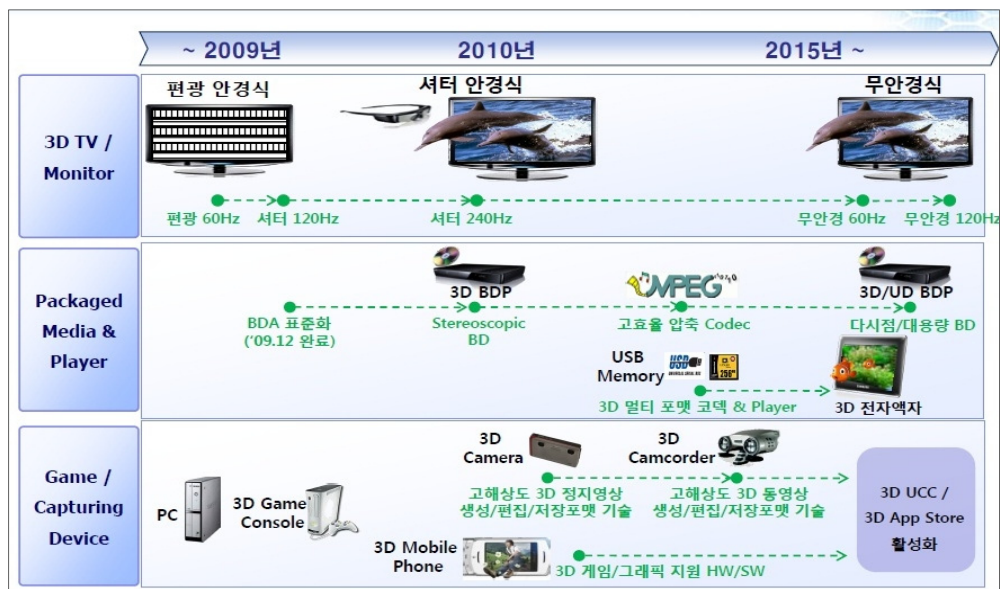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3D TV는 안경식으로 크게 편광안경 방식과 셔터안경 방식으로 구분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까지 선보인 제품이 편광안경 방식이고, 올해 선보인 3D LED TV에 본격적으로 3D 셔터안경 방식이 적용됐다.

편광안경 방식은 광학 스크린을 TV의 LCD패널 전면에서 좌우 영상을 분리할 수 있는 편광 글래스를 부착한 후 편광안경을 통해 3D 화면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화면 겹침 현상이 적고 밝기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측면에서 볼 때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해상도도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셔터안경 방식은 패널에서 좌우 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할해 번갈아 출력하고 영상과 동기화된 신호에 의해 동작하는 셔터안경을 통해 3D 화면을 시청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화면 해상도와 명암비가 좋고 시야각도 편광방식에 비해 밝기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방식의 경우 아직까지 어지럼증 등 대뇌 피로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렌즈 전환 기술과 초고해상도 패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단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무안경식 기술과 홀로그래프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초기 기술개발 단계로 당분간 상용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3D 디바이스의 진화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3D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TV다. 지난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어지럼증을 없앤 풀HD급 30인치 3D AM OLED TV를 개발했다. 기존 3D LCD 디스플레이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시차를 두고 각각 보여야 할 영상이 중간에 겹치는 크로스토크(Crosstalk) 현상이 발생해 입체감을 떨어뜨리고 어지러움을 유발했지만 3D AM OLED는 이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AM OLED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편광안경 방식과 셔터안경 방식이 서로의 기술적 단점을 만회하며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D TV 승자가 세계 가전판도 갈러... 한-중-일 삼국지 가열

TV 시장은 세계 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1960~70년대 미국 RCA가 흑백 TV를 앞세워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했고, 1980~90년대는 소니가 트리니트론이라는 컬러 브라운관 TV 시장을 석권하면서 일본이 시장을 휩쓸었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LCD TV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시점에 일본을 누르고 가전의 맹주 자리에 올라섰다.

이제 3D TV는 우리나라가 세계 가전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일본의 권토중래가 현실화할 지, 중국의 가전 시장 맹주의 꿈을 이루게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 2010'에서 한-중-일 3국이 3D TV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인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단 올해 3D TV 경쟁에서는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기선을 잡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올해 200만대 이상의 3D TV를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셔터안경 방식의 3D LED TV를 내놓았다. 또 업계 최초로 3D TV 뿐 아니라 3D 블루레이 플레이어-3D, 홈시어터-3D, 콘텐츠-3D 안경 등을 총망라한 '3D 토탈 솔루션'을 구축했다.

LG전자 3D TV



삼성전자 3D LED TV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삼성전자가 풀HD 3D LED TV 글로벌 첫 출시를 통해 입체화질의 3D TV 시대 주도권을 확보했다”며 “완벽한 3D 토털 솔루션으로 작년 ‘LED TV=삼성’ 공식에 이어 올해는 ‘3D TV=삼성’ 공식을 이어가겠다.”고 자신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편광안경 방식 3D TV를 출시했고, 3월에 인도와 영국 등의 해외 위성방송사업자에 대규모로 3D TV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또 지난달 25일 셔터안경 방식의 3D TV까지 내놓았고 앞으로 3D 프로젝터까지 출시해 3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100만대 가까운 3D TV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서 일본 파나소닉과 소니는 각각 4월과 6월에 3D TV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고, 올해 100만대와 250만대의 3D TV 판매목표를 제시했다. 도시바도 연내에 3D TV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특히 파나소닉은 세계 최대의 전자전문점인 미국 베스트바이와 제휴해 3D TV 전용코너를 주요 도시 300개 점포에 설치하면서 3D 바람 일으키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도 정부 지원을 업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기술력을 보강해 한국과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어 긴장감을 더한다. 하이얼,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은 3D TV를 전시회 등에서 선보이며 한-일 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LG전자 남용 부회장은 “매장에 가면 일본, 한국, 중국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 업체가 따라오고 있다”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이 추격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가온 3D TV 시대... 선택은?

2010년 평면 영상에서 입체 영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브라운관 TV에서 LCD·PDP TV로 넘어가던 2000년대 중반,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서 혼선을 빚었던 것처럼, 지금 소비자들은 3D TV를 구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가장 먼저 3D TV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3D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를 담보할지 의문이다. 현재 볼 수 있는 3D 콘텐츠는 일부 영화사에서 내놓은 3D 타이틀로 몇 종에 불과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2D 콘텐츠를 3D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TV에 탑재했지만, LG전자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2D→3D 콘텐츠 변환 기능도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다.

기존 LCD TV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싼 3D TV 가격도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삼성전자의 46인치 초고화질(풀HD) 3D LED TV 가격은 420만~450만원, 55인치 가격은 580만~610만원이고, 3D 안경 가격도 10만원 정도다. LG전자의 47인치 풀HD 3D LED TV 가격은 47인치 470만원, 55인치가 630만원, 3D 안경이 12만원이다.

3D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LCD TV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과거 고화질(HD) LCD TV가 수년만에 브라운관 TV를 대체해 나간 것처럼 ‘프리미엄’을 갈구하는 소비심리를 파고든다면 3D TV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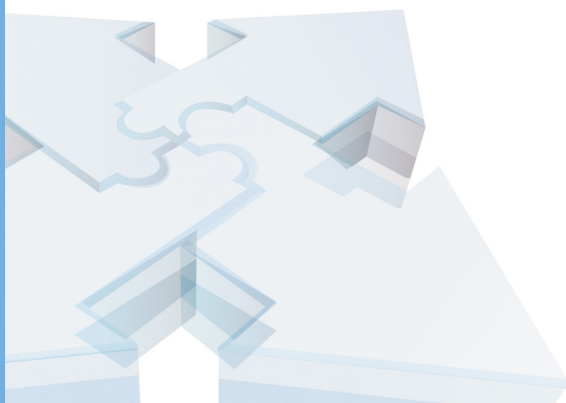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LCD TV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0% 이상 가격이 떨어지며 대중화에 속도를 붙였던 것처럼 3D TV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다만 3D 콘텐츠의 보급 확산 속도가 문제인데, 콘텐츠 업계도 불법복제를 피해 수익 창출에 나서는 방편으로 3D에 적극적이어서 비관적이지는 않다.

결론은 소비자의 몫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선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3D TV를 먼저 즐길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지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장 진 | 경희대학교 교수(차세대디스플레이센터장)

1. 국내외 시장 현황

국가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에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하다가, 200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노트북, 모니터, 휴대폰 등은 고급화 추세이며, 디지털 방송, DMB, IPT, 3D 등의 발전에 따라 신규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점유율

(단위 : 금액기준, %)

구분	'98	'00	'02	'04	'05	'06	'07	'08	'09
한국	27.0	38.0	39.0	38.7	39.3	39.0	38.4	39.2	46.2
일본	73.0	52.0	28.0	33.3	27.3	25.7	22.3	22.3	18.0
대만	-	10.0	33.0	28.0	29.8	32.0	35.2	32.3	33.0
중국	-	-	-	-	0.7	2.9	3.6	2.7	2.7

* DisplaySearch 및 Displaybank '10.1.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규모

(단위 : 억불)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FPD	292	421	627	753	843	1,010	1,028	888	944
LCD	269	383	565	673	751	949	953	826	876
PDP	12	24	43	60	75	58	61	45	42
OLED	1	3	5	5	5	5	6	8	13
기타	11	12	15	15	12	8	7	8	13
CRT	285	240	132	107	75	50	34	16	10

* DisplaySearch, '09. 4Q.

2012년 이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50인치 이상 TV, 3D TV 및 상업용·공공용 디스플레이 등은 대형 시장 대응을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샤프는 세계 최초로 2008년에 10세대 라인에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 가동 중이다. LGD와 삼성전자는 8세대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0년에는 100억불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9년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세계시장 규모는 541억불 수준이고 이는 연평균 7.2% 증가에 해당된다.

FPD 부품소재 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CAGR
LCD	49,943	52,113	57,779	7.2%
PDP	2,186	1,930	1,887	-7.09%
OLED	48	126	188	97.91%
합계	52,177	54,169	59,854	7.17%

우리나라는 '95년에 처음으로 TFT-LCD 양산을 시작한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LCD가 국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09년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337억불로 전년대비 8.5% 감소를 보였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로 증가하였다. '09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대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내 업체는 시스템 사업부와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국내 패널업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중국 등의 수요증가 영향으로 '09년도 수출은 314억불을 달성하였다.

디스플레이 생산 및 수출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생산(십억 원)	31,247	38,452	42,571	38,942
(M\$)	32,658	41,381	39,382	33,733
증감율(원단위기준,%)	13.8	23.1	10.7	△8.5
세계시장 점유율(%)	35.8	38.7	39.1	43.9
수출(M\$)	26,269	35,312	37,159	31,427
증감율(%)	16.1	34.4	5.2	△15.4

* Displaybank '10.1.

2009년 국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시장규모는 228억불이고, 2013년에는 296억불로 시장규모가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은 친환경 LED TV원년의 해로, BLU(백라이트) 광원이 LED로 급격히 전환되는 추세로, LED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LED TV는 '08년에 20만대에서 2013년에 1억 5천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08 디스플레이뱅크). 2009년 우리나라의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LCD 52.8%, PDP 52.1%,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98.4%를 차지하였다.

FPD 부품소재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백라이트	5,626	5,883	6,660	7,782	8,622	8,499	8,392	6.9%
컬러필터	4,100	4,436	5,500	5,936	6,676	7,032	7,539	10.7%
글라스기판	3,187	3,724	4,442	5,136	5,484	5,629	5,857	10.7%
편광판	2,203	2,560	2,778	2,831	2,977	2,991	3,050	5.6%
드라이베IC	2,469	2,580	2,958	3,212	3,566	3,840	4,085	8.8%
액정	353	398	532	567	658	722	775	14.0%
합계	17,939	19,581	22,870	25,463	27,983	28,713	29,698	8.8%

자료 : '09 디스플레이 뱅크

국가별 시장 점유율

(단위 : 금액기준, %)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27	38	39	38.7	39.3	39.0	38.4	39.2	46.2
일 본	73	52	28	33.3	27.3	25.7	22.3	22.3	18.0
대 만	0	10	33	28.0	29.8	32.0	35.2	32.3	33.0
중 국	0	0	0	0	0.7	2.9	3.6	2.7	2.7

자료 : DisplaySearch, Displaybank.

'09년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직접 고용인력은 약 8만명이며, '04년 이후 연평균 18% 비율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문학사 이상의 고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패널 · 장비 · 재료업체 직접 고용인력(국내)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직접고용	33,750	44,400	45,298	46,871	67,554	77,784	18.2%

출처 : 산업기술인력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보고서, KDIA('09.10).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LCD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패널 두께 감소, BLU slim화 등을 통한 초박형화, 경량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휴대폰 기준 패널 두께 0.2mm 이하 기술이 일본, 한국 등의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양산에 적용되고 있다. TV모듈은 9mm 이하의 제품이 양산 중이고, 계속하여 두께가 줄어들고 있다. 저소비 전력 기술 개발은 local dimming기술¹⁾과 광학시트, 회로의 성능 향상 등을 통한 BLU 효율 개선 기술 등이 진행되고 있고, 50인치 기준으로 60W 이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3D 구현을 위한 그리드 와이어 풀, 터치 기능의 셀 내장, 회로가 내장된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통한 제품의 다기능 및 고품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2D/3D 전환이 가능한 LCD 모니터, TV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위하여 장비 및 공정 수 저감 기술, 프린팅 기술, 잉크젯 기술 등 인쇄 공정 도입을 위한 기술이 개발 중이다.

소형 모바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시인성 및 화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중대형 AMOLED는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15인치 AMOLED가 상품화되었고, 20~40인치 급 AMOLED 제품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5~6세대 대면적 기판을 위한 OLED 공정장비가 개발 중이고, 5~6세대 기판을 이용한 TFT 공정장비, 유기증착·봉지 공정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대형 AMOLED를 위한 고효율 인광재료, 용액재료, 봉지재료 및 OLED 화질 향상을 위한 회로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OLED 신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OLED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Philips, Osram, Lumitec 등은 진공증착 기술을 기반으로 20lm/W급의 OLED 면광원 시제품을 판매 중이고, GE는 저가격화를 위한 롤투롤(Roll-to-Roll) 공정을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공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70lm/W의 고효율 백색 OLED와 20lm/W급의 투명 백색 OLED 기술을 개발하였고, OLED 광원은 장수명·고효율화와 더불어 저가

1) 화면분할 구동을 뜻하며, 백라이트를 다수의 영역으로 구분, 휘도를 영상신호와 연계해 영상의 어두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은 백라이트를 끄거나 빛을 줄이고, 밝은 영역은 휘도로 높여줌으로써, 명암비 및 소비전력을 대폭 개선한 기술이다.

격 공정기술 및 이를 구현할 장비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3D는 극장을 중심으로 안경 방식 3D Display가 활성화 중이고, 가정용 안경 방식 3DTV가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이다. 차세대 3DTV로서 무안경 방식 3DTV 시제품이 발표(Philips)되었고, pico-projector(초소형 프로젝터)의 경우 해상도가 낮은 엔진이 개발되어 상용화 초기 수준이다.

플렉시블 전자종이는 기초연구수준에서 상용화수준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리 기판 상의 TFT를 이용한 응용 기술이 다양화되고 있다. Amazon의 Kindle이 대표적인 상용화 성공 제품이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종이는 Polymer Vision, Plastic Logic사를 중심으로 상용화 직전 단계에 와 있고, 삼성, LG, Sony 등도 E-ink社의 상판을 이용하여 전자종이를 개발 중이다. Bridgestone社의 QR-LPD도 각종 광고용으로 개발 진행 중이고 SiPix社의 microcup 전자종이도 signage 용도로 사용 중이며 Qualcomm社는 동영상과 color가 가능한 전자종이 개발이 진행 중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차기 개발은 플렉시블 기반의 AMOLED 디스플레이로 예상된다. 현재는 기판의 투습·투산소 및 상부의 박막 봉지 등의 기술 문제로 OLED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제품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장비의 국산화율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10세대이상 대면적 장비 개발 진행 중이고, 상온, 상압 공정을 이용한 공정 장비, 패터닝 기술로 디지털 노광 장치, 잉크 젯 패터닝, Laser 패터닝, Roll-to-Roll 프린팅, Roll-to-Roll 박막/식각 장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3. 산업 및 기술 발전 전망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OLED, 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지원으로 Flexible Display Center('04.2)를 설립하였고, 미국 내의 소재·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개발, E-ink社의 전자종이(e-Paper)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UDC를 중심으로 OLED 조명 및 OLED 핵심 재료 개발,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

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을 미국방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 5년 후에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미국에서 완숙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럽에서는 필립스, 노키아 등이 참여하는 FlexiDis Project 컨소시엄('04.11)을 구성하여, 전자종이 및 유기반도체 소재를 개발 중이고, Plastic Logic社는 OTFT(유기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전자종이를 개발하여 양산 추진 중이며, CDT(Cambridge Display Technology)는 고분자 OLED 특허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OLED 조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일본 통산성이 업계 공동의 컨소시엄인 「퓨처비전(Future Vision)」을 결성하고, 153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Future Vision(FV)의 거점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Super Advanced Research Center for Flat Panel Display”가 설립되었고, Sharp는 Future Vision을 통해 잉크젯 프린팅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프린팅 기술은 일본이 최초로 제품에 응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프린팅 관련 재료 분야는 일본이 리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서는 국가에서 flexible display분야 지원으로 연 300억 규모(ITRI주관)로 지원되고 있고, 2009년에 PVI社가 E-ink(미)사를 인수하였고, AUO社는 SiPix(미)社를 인수하여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E-Ink를 이용한 e-paper는 대만이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타 기술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다기능화로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추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3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의 다양한 차세대 제품에 응용될 전망이다. LCD 디스플레이는 진정한 벽걸이 TV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슬림, 초경량, 초저가, 초저전력 제품으로 진화할 것이고, OLED 디스플레이는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중·대형 디스플레이로 대형화 기술로 진화할 것이다. 3D 디스플레이는 무안경방식과 안경방식 2가지 축으로 발전하며, projection 디스플레이는 고정세 대화면용 디스플레이와 소형 화면용 디스플레이로 발전할 전망이고, 가정용 3D TV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상용화가 시작되고,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무안경 방식의 3D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플렉시블디스플레이는 깨어지지 않는 디스플레이에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유연한 플렉시블디스플레이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 부품·장비 기술이 병행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최고의 패널 생산기술을 보유하여 가격, 품질 등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으나, 부품·소재·장비 등 연계기반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핵심분야의 국산화율은 저조하다. 장비 국산화율은 50% 수준이고 TFT 공정장비의 국산화율은 특히 저조하다. 공정 장비 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 및 대만,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한 business 개선 영향으로 국내 장비 업체가 크게 성장하여 5년 내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조 매출을 달성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 및 원재료 분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일부 부품의 국산화율은 70%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나,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하다. 편광판을 구성하는 핵심소재인 TAC필름, PVA필름 등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BLU의 핵심 부품, 컬러필터의 화학원재료, 유리기관 원재료, 액정, 컬러레지스트 원재료, 배향막, 보상필름 등의 국산화율은 전체적으로 20% 이하이다. 대부분의 2차 소재 및 3차 원재료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2-3차 디스플레이 재료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형 과제를 만들지 않으면 대일 무역 역조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OLED 조명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개발이 뒤늦었으나, 세계적 수준의 OLED 패널 생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경우에 기술 격차의 해소가 가능하다. 세계적 수준의 패널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핵심소재 및 장비 부문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조명용 광원 기술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소재 기술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재료의 경우 국내에서 열팽창계수가 낮고, 열안정성이 확보된 PES, PEN, PC 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Dupont-Teijin에서 PC/IZO를 양산 중이며, 최근 Bayer PC 사업부에서 열적으로 안정한 (200°C)PC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재료의 경우 필름의 베리어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코팅기술 및 열팽창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5년 내에 유리 기관에 버금가는 플라스틱 기관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시장 전망

(단위 : B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LCD	69	90.7	103.5	108.1	116.3	120.2	125	128	132	135
PDP	7.9	6.8	7.4	7.7	8.5	9	9.6	10.4	11	12
OLED	0.5	0.7	1.3	2.9	5.9	10.6	13	16	19	23
합계	77.4	98.2	112.2	118.7	130.7	139.8	148	156	162	170
성장율		27%	14%	6%	10%	7%	6%	5%	4%	5%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5년에 1,700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850억불의 패널 생산과 450억불의 부품 장비 매출이 예상된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응용산업(TV, monitor, NB 등)을 제외하고도 1,300억불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한 부분은 대단위 디스플레이 재료부품장비 단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LCD 부문이 있는 충남에서 디스플레이 전문 단지를 조성하여, 디스플레이 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10년 내에 200억불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문 단지가 충남에 형성되기를 꿈꾸어 본다.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 전기차

이 덕 규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장

1. 그린카의 정의 및 국가정책

1) 그린카의 개요

그린카는 그린 동력시스템¹⁾의 활용 또는 장착(built-in green)하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HEV)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구동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고연비·고효율을 실현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내연기관과 모터를 같이 이용하지만,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여 단거리 주행시 전기모터로만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EV)는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수소연료전지차(FCV)는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구동력을 얻는 친환경 자동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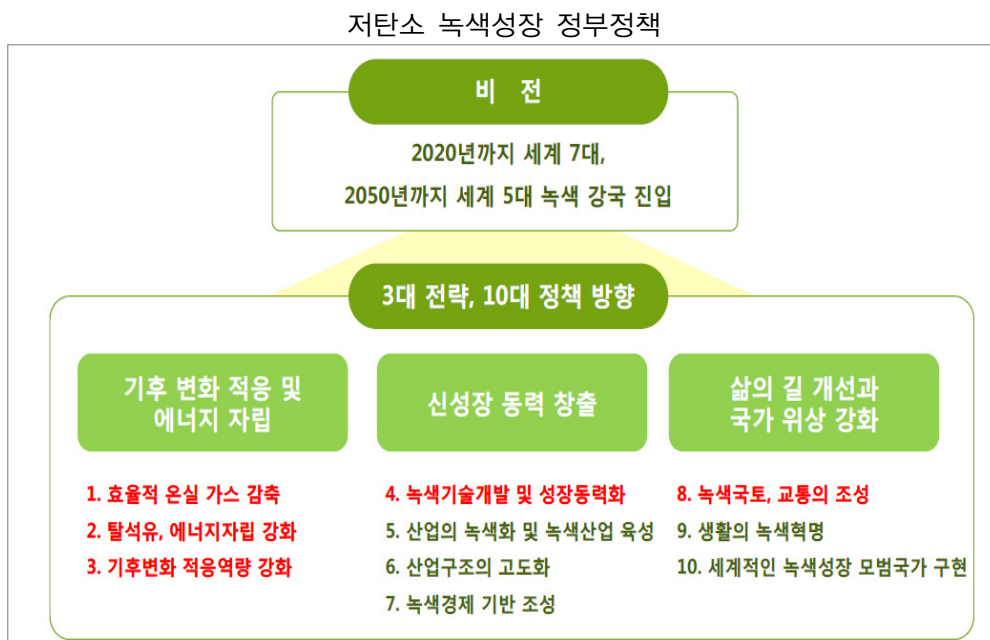
1) 그린 동력시스템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출가스, CO₂등이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Zero-Emission) 동력시스템

그린카 산업의 분류별 특징

구분	하이브리드카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동력계 구조				
구동원	엔진 + 모터	모터, 엔진(방전시)	모터	모터
에너지원	화석연료, 전기	전기, 화석연료(방전시)	전기	수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식내연기관/모터 · 적절히 작동시켜 연비향상 · 별도 인프라 필요 없음 · 배터리를 전용 주행 5Km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거리 전기로만 주행 · 장거리 주행시 엔진적 구동 · HEV대비배터리용량 증대(주행거리6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ro-Emission · 현재근거리 주행만 가능(100Km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구동 · 미션(X), 수소탱크, 스택 등 장착(레이아웃불리) · 시스템 고가
구입 비용	다소 고가	다소 고가	고가	초고가
	다소 저비용	다소 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내연기관 대비 동일	내연기관 대비 거의 동일	내연기관대비불편 (충전필요)	내연기관대비불편 (수소충전필요)
적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우스(도요타) · 시빅(혼다) · 아반테LPI(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ymotion (도요타 개발용) · SprinterVan (벤츠 개발용) · CLEANOVA2/3PLUB (SVE 프랑스 개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iEV (미쯔비시) · e-ZONE (CT&T) · AURORA (AD-TE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티지, 모하비 (기아, 개발용)
시장 성숙시기	현재 대표 차종	2010~11년 이후	2015년 이후	전망 곤란

2) 녹색산업의 국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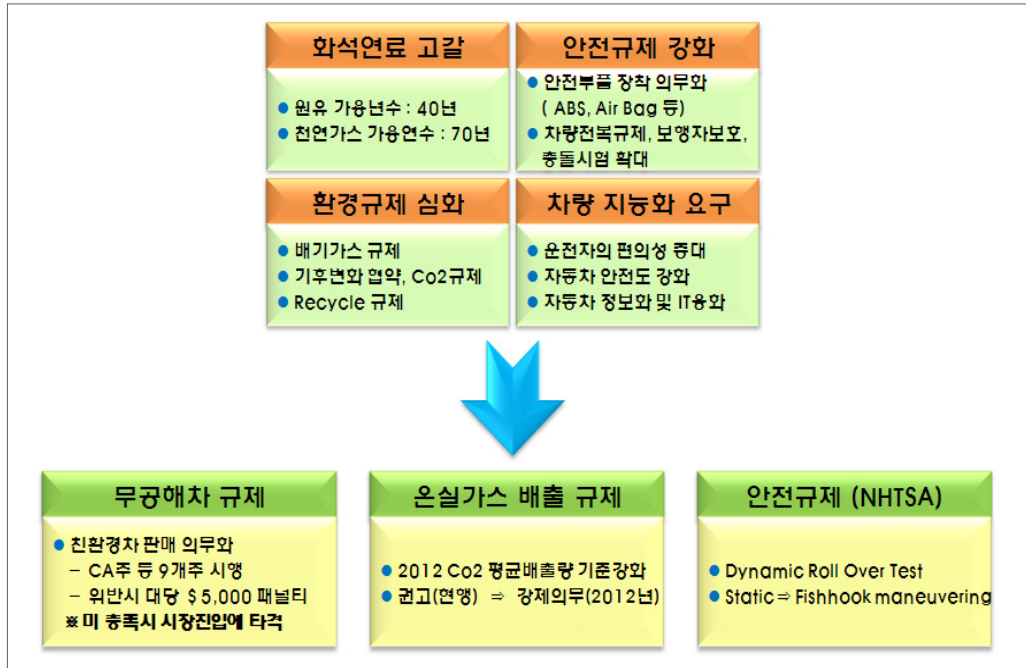
경제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지각변동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건곤일척 생존책으로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했고, 범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진 각국은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그린카 개발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존망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 자동차 개발에 소극적이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력 및 기술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구축, 표준화 문제, 법·제도 개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기업체에서만 수행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기 자동차의 충전 기술은 전력 산업, 에너지 산업, IT 관련 장비산업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탄소 그린사업 성장을 위한 국가계획 및 기본방향 그리고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진입을 목표로 한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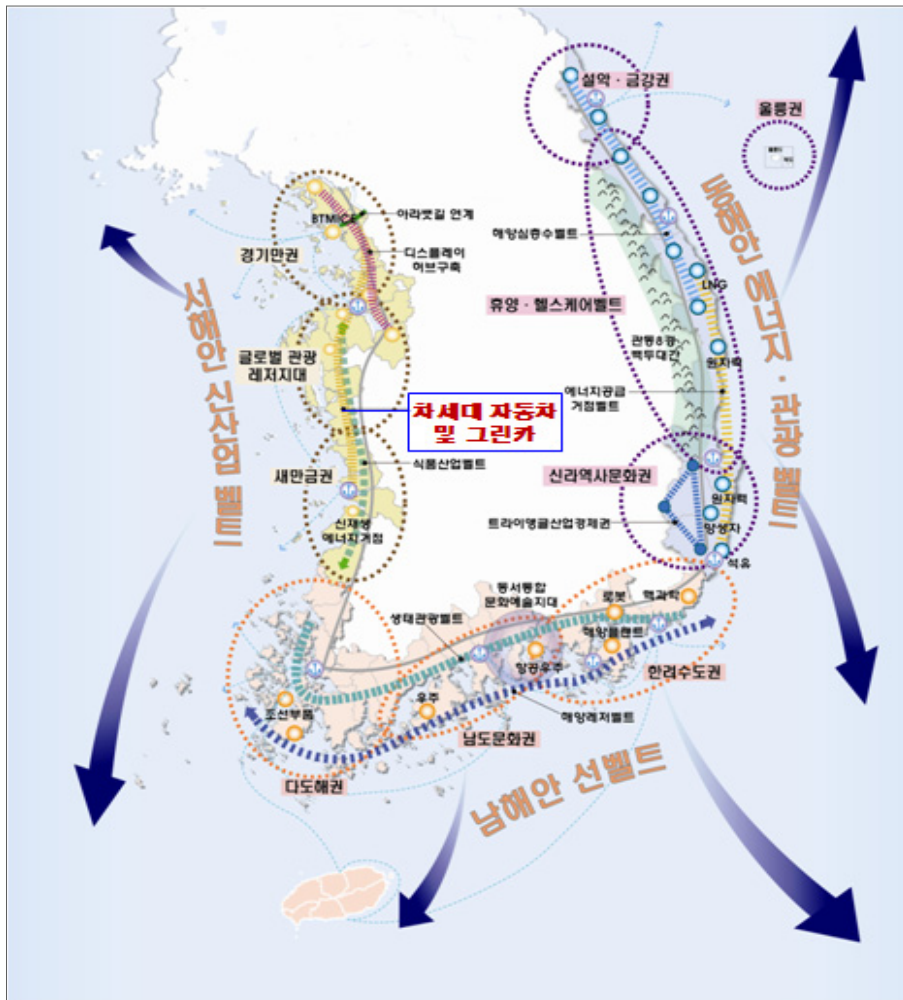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정부는 녹색성장으로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화석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린카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무공해차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전규제에 관한 정책을 강화했다.

환경 및 안전 규제



또한 정부의 그린카 개발정책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 단위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고, 광역경제권은 7개(5+2) 권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며, 초광역경제권은 동서남해안·남북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추진 등 대외 개방형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 신성장축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서해안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 첨단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개발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초인류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한 차세대자동차 및 그린카, 로봇, 기계 등 주력산업과 IT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다.



2. 자동차의 미래 변화

자동차의 미래 산업은 석화연료를 사용하여 내연기관의 동력을 이용하는 일반자동차에서 석화연료와 전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 외부의 충전을 통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자체발전 시스템을 갖춘 수소연료전지차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판매수량은 점차 줄어들고,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가 점차 증가할 것이며, 2020년경에는 전기차의 비중이 40%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동차의 미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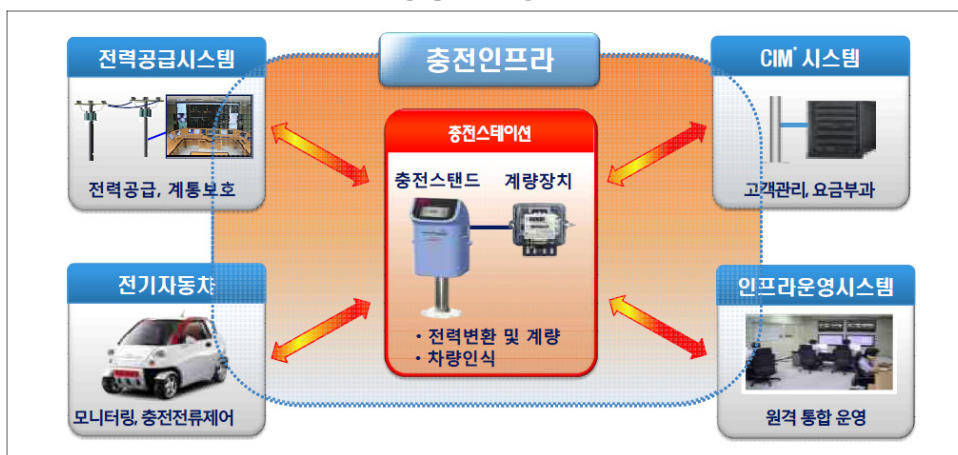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로 이동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 또한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맞게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연료탱크로 이루어진 구동시스템이 전기차에서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비교



또한 기존 내연기관의 인프라와는 차별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같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



자료 : 한국전력공사

3. 충남의 자동차 산업 환경

1) 지리적 환경

충청남도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충남의 어느 지역에서든 전국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부선과 KTX 전철이 서북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서북부지역과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장항선의 복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교통연계를 위하여 구로역에서 신창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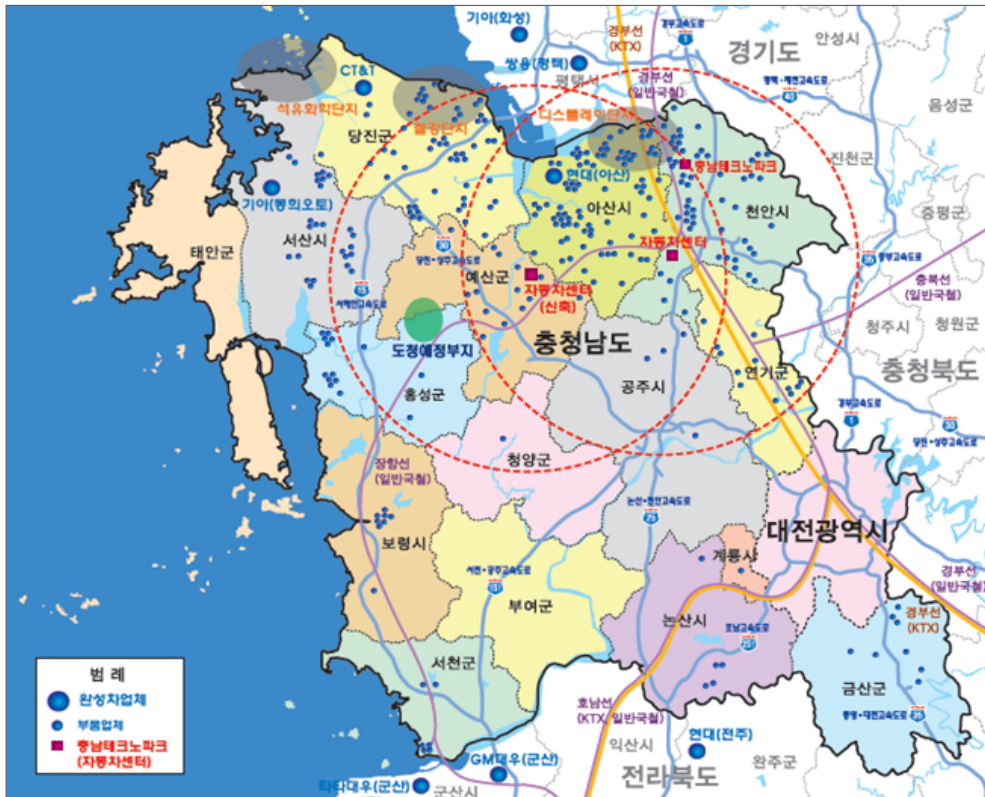
2) 자동차 생산 환경

현대 아산공장의 승용차(중·대형), 동희오토의 승용차(경차), 기아(화성)의 승용차(소·중·대형) 및 SUV, 현대 전주공장의 버스 및 트럭(중·대형), GM대우 군산공장의 승용차(소형), 대우 타타공장의 트럭(중·대형)을 비롯하여 당진의 CT&T 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전 차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렇게 전체의 자

동차 종류별로 다양한 차종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은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아래 그림 참조).

충청남도 자동차산업 현황



3) 연구기능 및 인력배출 환경

자동차부품의 연구개발 기능은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연구인력의 배출현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선문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한서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청양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13개 대학의 자동차관련 학과에서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4. 전기차, 충남 그린카의 미래를 향한 우선과제

충남은 산·학·연·관이 협동하는 전기차의 메카로서 국내 전기차산업의 시범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고, 충남 거점 산·학·연 각 부문간 상호보완적 지원 및 융합으로 세계적 전기차 개발, 실증단지 및 테마파크로서의 종합적 시범단지 조성이 필요하여 충남도에서는 '09년 5월 12일 산·학·연·관 8개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그린카 메카로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카 메카 선언('09.5.12)



충청남도가 그린카의 미래로 향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충남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자체의 전기차 산업육성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품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그린카 부품산업 협업 산업단지 조성 및 충전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그린시티 육성에 따른 부품기업의 산업유치 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차별화된 인프라가 요구되어진다.

셋째로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핵심요소기술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기차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기차 개발에

는 모터 및 구동부품, 구조 및 동력부품, 배터리 및 전원제어기술, 그린소재 경량화기술, 편의 및 안전부품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5. 충남의 전략

충청남도는 “도시형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산·학·연·관 업무협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시티, 그린산업단지, 부품협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구성하며, 전기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다.

비 전	도시형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미 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충남의 신성장동력 육성 ◦ 도시형 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 추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전기차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속 : 80 ~ 100km/h - 이동거리 : 150 ~ 200km/1회 충전 ◦ 그린부품 산업단지 조성 : 638,083m² ◦ 연구개발, 디자인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전 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부품산업 진흥원 설립 (2012년) ◦ 녹색신도시 개념을 도입한 도청신도시 건설 (Co₂ 배출 Zero화, 도시형 전기차 도입 등) ◦ 전기차 생산체계를 연결한 생산정보화 시스템 구축 ◦ 도시형 전기차 클러스터를 패키지화하여 충남의 신성장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충남도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속 80~100km의 도시형 EV 개발로 특화분야를 정하였다.

전기자동차의 분류 및 충남 특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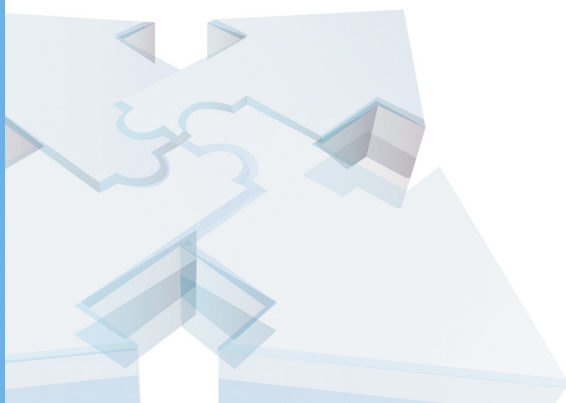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차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형 전기차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전기차 부품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기업의 연계운동을 위한 생산정보화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하여 기업간 물류 및 B2B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형 전기차의 생산·운영 시스템을 충남의 지식서비스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형 전기차의 시스템을 수출가능 하도록 하고자 한다.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33.9	126.3	122.6	122.1	117.2	115.0	33,138	31,062	24,035	22,867	4.9
서울	90.4	95.7	127.2	117.5	116.8	114.5	3,031	7,277	5,100	4,803	5.8
부산	119.3	117.7	164.7	125.3	117.8	115.4	728	1,041	1,632	1,560	4.4
대구	113.0	115.1	140.0	100.2	116.6	114.4	334	208	1,195	1,137	4.9
인천	102.9	101.2	93.7	121.8	116.9	115.3	1,405	2,213	1,359	1,271	6.5
광주	115.6	114.3	106.9	129.5	117.3	115.0	651	325	678	650	4.1
대전	116.0	114.7	118.1	109.7	116.5	114.6	268	185	715	679	5.0
울산	109.3	107.4	101.8	119.5	118.2	116.2	5,355	4,880	538	514	4.4
경기	148.1	129.8	155.1	120.5	117.6	115.4	5,812	6,253	5,757	5,432	5.6
강원	114.0	113.7	140.9	154.1	116.7	114.7	101	68	615	589	4.2
충북	155.1	163.0	160.1	127.0	117.5	115.4	687	426	706	683	3.4
충남	210.0	189.4	136.0	147.4	117.5	115.5	3,652	1,896	936	896	4.3
전북	122.7	127.9	142.4	147.8	117.5	115.5	833	283	796	772	2.9
전남	115.7	112.9	115.4	161.1	117.1	115.2	2,286	2,426	903	883	2.2
경북	118.0	115.1	142.3	146.1	117.8	115.6	3,093	1,277	1,315	1,264	3.9
경남	127.4	133.0	104.6	143.1	117.8	115.7	4,897	2,283	1,510	1,460	3.3
제주	137.9	113.2	96.9	154.9	116.7	114.3	7	20	283	275	2.7

경제동향 [총괄]

경기

-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대비 0.73%p 상승
- '09년 5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국면 지속

산업활동

- 2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8% 감소, 제품출하지수는 전월대비 1.7%로 감소세 전환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금속가공제품 등의 생산 및 출하 감소

소비 및 물가

- 2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증가세 기록
- 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0.3% 상승,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0.4% 상승

수출입

- 2월 중남의 수출은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53.1% 큰 폭 상승하였지만 전월에 비해 0.5% 감소
- 수입은 유연탄 등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전월대비 4.5% 증가
- 2월 무역수지 17억 56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고용

- 2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0.4% 증가, 취업자 89만명
- 2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 46.2% 증가, 전월대비 2.0% 감소, 실업률 4.3%

건설 및 부동산

- 건축허가면적(+15.5%) 및 착공면적(+26.7%)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
-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 둔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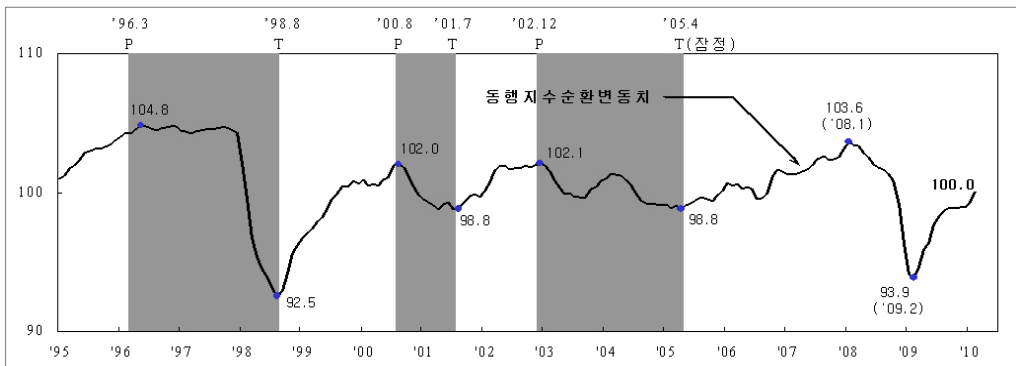
1. 경기

[전국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등 8개 지표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1.2%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p 상승**
 - * '09.3월부터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09.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	'10.1월 ^p	2월 ^o
○ 동행종합지수	121.8	122.8	123.6	124.1	124.7	125.2	126.2	127.7
· 전월비(%)	1.1	0.8	0.7	0.4	0.5	0.4	0.8	1.2
○ 순환변동치	98.3	98.7	98.9	98.9	99.0	98.9	99.3	100.0
· 전월차(%p)	0.6	0.4	0.2	0.0	0.1	-0.1	0.4	0.7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인 건설기성액 자료가 불변건설기성액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행종합지수 시계열 자료가 변경되었음.

- **선행종합지수**는 구인구직비율, 자본재 수입액 등 3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 지표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1.0%p 하락**
 - * '09.1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 후, '10.1~2월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09.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0.1월 ^p	2월 ^p
○ 선행종합지수	122.1	123.2	123.9	124.7	126.1	127.0	127.4	127.1
· 전월비(%)	1.5	0.9	0.6	0.6	1.1	0.7	0.3	-0.2
○ 전년동월비	7.6	8.8	9.6	10.3	11.3	11.6	11.3	10.3
· 전월차(%p)	2.1	1.2	0.8	0.7	1.0	0.3	-0.3	-1.0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0. 2월중 동행종합지수는 128.8로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액 등의 모든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94%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3%p 상승한 102.4을 나타내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 2009년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09.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0.1월 ^p	2월 ^p
○ 동행종합지수	120.9	122.1	123.6	124.7	125.7	126.3	127.6	128.8
· 전월비(%)	1.36	0.94	1.22	0.89	0.81	0.51	1.04	0.94
○ 순환 변동치	97.8	98.5	99.5	100.2	100.5	100.8	101.7	102.4
· 전월차(%p)	1.12	0.73	1.01	0.68	0.34	0.29	0.83	0.73

주) p는 잠정치임.

- 2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지표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0.37%), 산업생산지수(0.61%), 대형소매점판매지수(2.40%), 전력사용량(2.41%), 수출액(1.73%), 수입액(2.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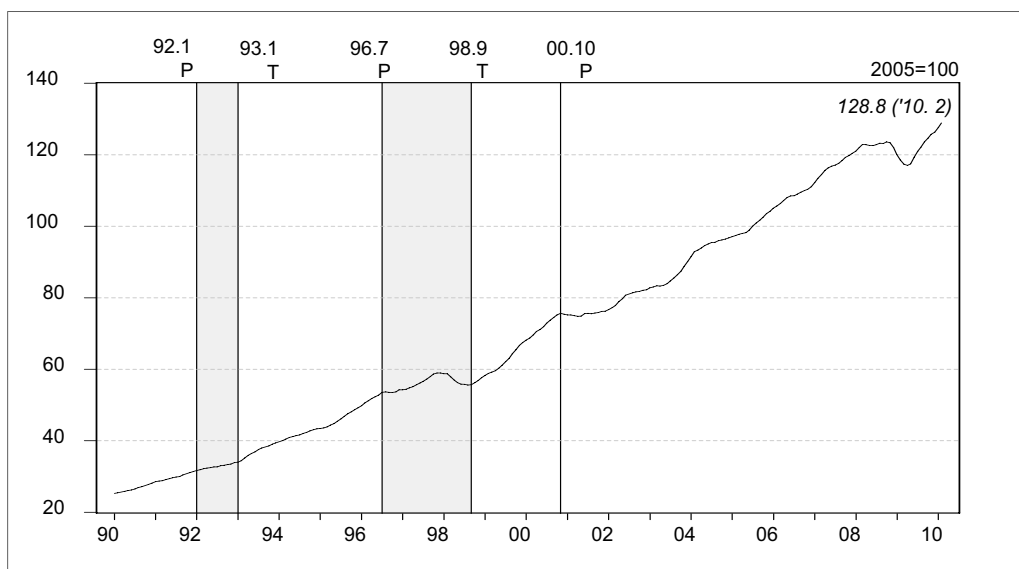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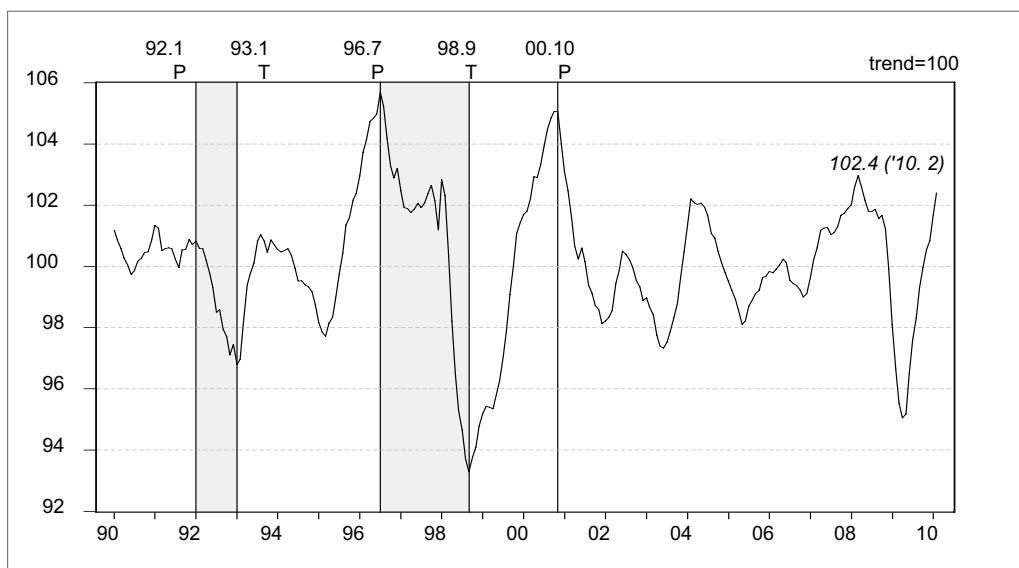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09.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0.1월 ^p	'10.2월 ^p
비농가취업자수	-0.34	0.09	0.60	0.34	-0.07	-0.65	0.03	0.37
산업생산지수	6.83	5.41	4.54	3.15	2.03	1.71	1.35	0.61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36	0.09	0.76	-0.24	1.42	0.64	2.46	2.40
전력사용량	1.28	1.23	1.44	1.38	1.81	1.87	2.66	2.41
수출액(실질)	5.60	3.98	2.63	3.08	3.06	3.71	2.37	1.73
수입액(실질)	1.13	-1.43	1.15	0.89	1.10	0.54	2.91	2.26

주)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0. 4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은 개선이 지속되나, 비제조업 업황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 4월 업황전망 BSI는 제조업(3월 96→4월 99)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비제조업(3월 90→4월 87)은 전월보다 하락
 - 자금사정은 제조업의 경우 4월중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비제조업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7	91	89	91	91	96	99(105)	+3(+4)
매출	96	101	98	103	103	109	108	-1
생산	98	103	100	104	106	110	110	0
신규수주	97	96	94	97	96	104	105	+1
채산성	87	91	89	93	94	93	95	+2
제품재고	105	104	105	104	103	99	99	0
인력사정	98	90	91	97	94	90	88	-2
자금사정	95	94	96	97	95	99	101	+2
외부자금수요	112	113	112	109	113	110	110	0
자금조달사정	96	97	101	100	96	100	100	0

주)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1	78	79	84	88	90	87(88)	-3(-3)
매출	86	90	93	95	96	94	94(100)	0(-3)
채산성	87	86	88	93	92	95	93(95)	-2(0)
인력사정	89	88	85	88	91	90	91(93)	+1(0)
자금사정	89	93	94	95	90	92	88	-4
외부자금수요	114	109	106	107	111	107	114	+7
자금조달사정	90	97	97	95	95	97	94	-3

주)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 2010. 2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 33.6% 증가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 증가에 기인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산업생산지수	138.8	215.8	205.9	204.6	211.9	207.6	185.5	
전년동월비	1.2	37.0	20.8	37.2	69.9	72.9	33.6	
전월비	13.4	2.9	-2.6	-1.8	2.8	3.3	-0.8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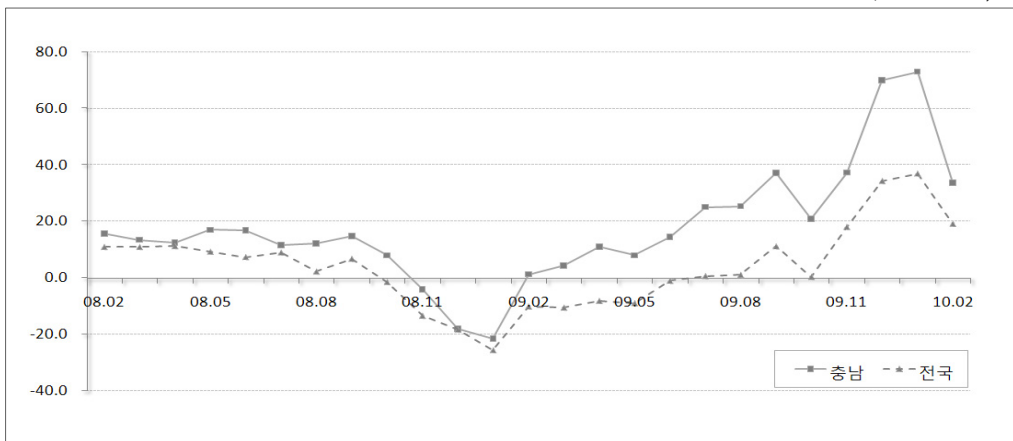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53.9) : TV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노트북용LCD, PDP 등
- 자동차(+38.8) :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62.2)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열연대강, 석도강판 등
- 비금속광물제품(+32.3) : 액정모니터유리, 차량용안전유리, 위생용도기제품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18.5) : 경유, 휘발유, 등유, 제트유, 부탄가스
- 의료정밀및광학(-43.1) : 광선치료기, 무선원격조절기, 안경렌즈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0. 2월 충남의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4% 증가 및 전월대비 1.7% 감소
 -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증가에 기인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출하지수	129.7	196.0	188.8	188.0	194.7	186.6	167.8	
전년동월비	-3.9	31.0	19.1	34.9	57.1	65.6	29.4	
전월비	13.2	5.3	-2.7	-1.5	3.2	2.3	-1.7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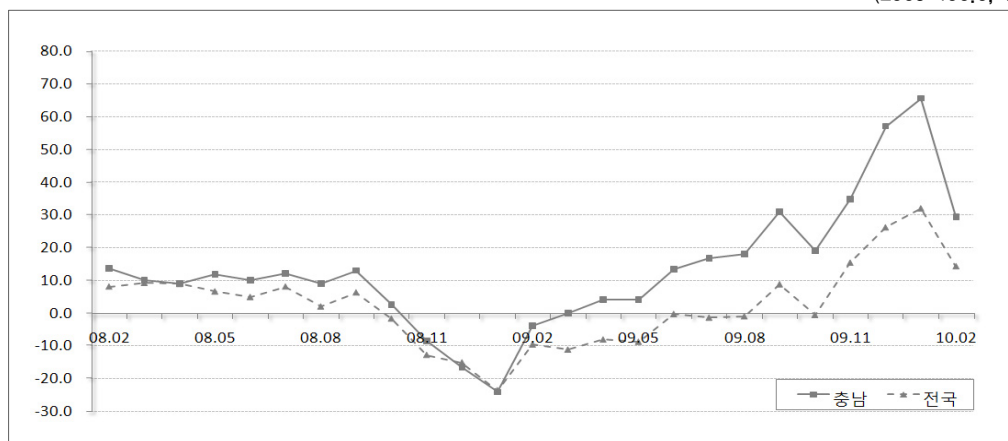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56.4) : TV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모스조립, 노트북용LCD 등
- 자동차(+44.9) : 동력전달장치, 중형승용차, 차체부품, 자동차용내연기관 등
- 제1차금속(+56.9)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칼라강판 등
- 기계및장비(+23.0) : 감속기, 반도체공정장비, 컨베이어, 금형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12.0) :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유, 부탄가스 등
- 금속가공제품(-13.0) : 건물용금속공작물, 새시문 및 창틀, 금속패널제품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0. 2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9.5% 증가
 - 이는 영상음향 및 통신,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음료, 자동차, 제1차 금속, 가구제조업 등의 업종 감소에 기인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P	2월 ^P	
재고지수	136.7	128.8	124.8	120.6	121.2	126.7	136.1	
전년동월비	11.9	2.4	-10.1	-17.3	-9.8	-7.2	-0.4	
전월비	-2.4	-1.8	-5.9	-2.2	0.3	1.1	9.5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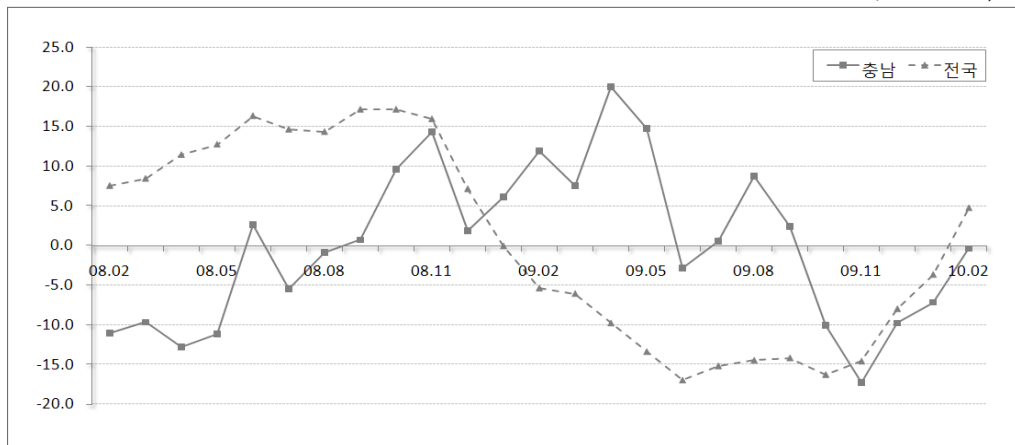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33.2) : TV용LCD,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PDP 등
- 전기장비(+8.1) : 전력선, 소형2차전지셀, 비데, 변압기 등

[감소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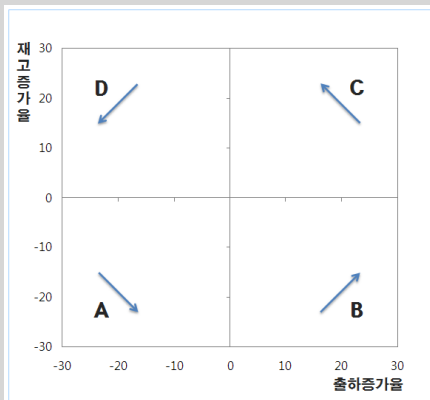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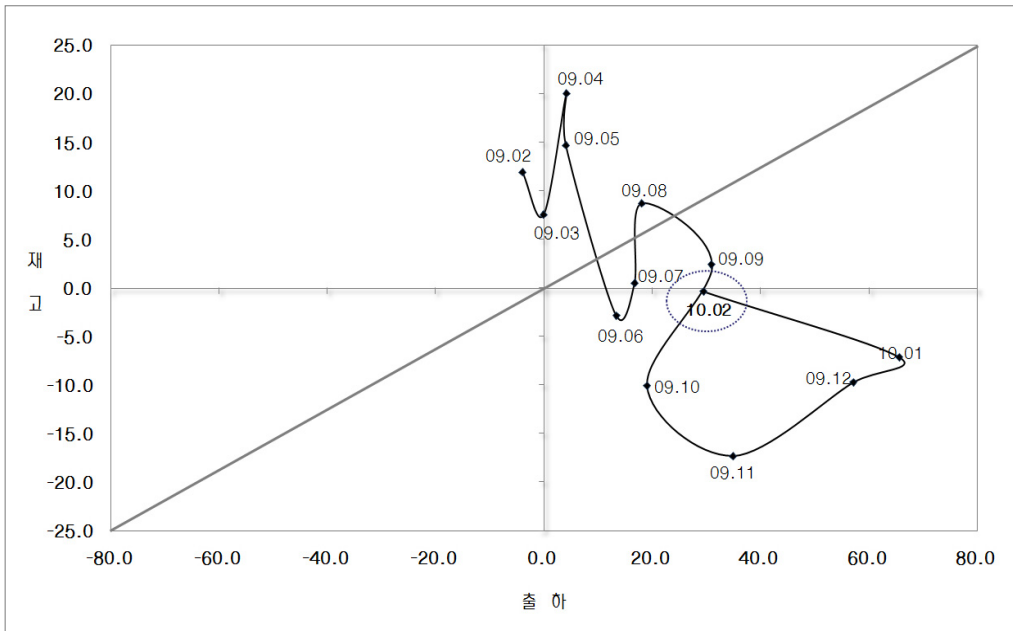
- 음료(-58.9) : 인삼음료, 과즙음료, 혼합음료
- 자동차(-11.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조향장치, 차체부품
- 제1차금속(-9.5) : 냉연강대, 열연대강, 석도강관, 강관 등
- 가구제조업(-64.7) : 싱크대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재고 분석]



- A : 경기회복기(의도하지 않은 재고감소)
- B : 경기확장기(의도된 재고증가)
- C : 경기후퇴기(의도하지 않은 재고증가)
- D : 경기침체기(의도된 재고감소)

- A: 수요증가에 대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로 대응함에 따라 재고는 감소하고 출하 증가
 B: 본격적인 수요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증가
 C: 수요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고는 증가하고 출하는 감소
 D: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기업들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

3. 소비 및 물가

[소비]

- 2010. 2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96,162백만원으로 전월대비 4.6% 증가,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 지수는 147.4 기록
-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10.7%, 전년동월비 44.6% 각각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3.5) : 가구(+15.0), 컴퓨터(+8.3), 기타(+6.0)
- 준내구재(+3.9) : 가방(+23.3), 의복(+5.2), 기타(+3.4)
- 비내구재(+14.6) : 화장품(+18.5), 서적·문구(+17.7), 음식료품(+15.8), 기타(+4.0)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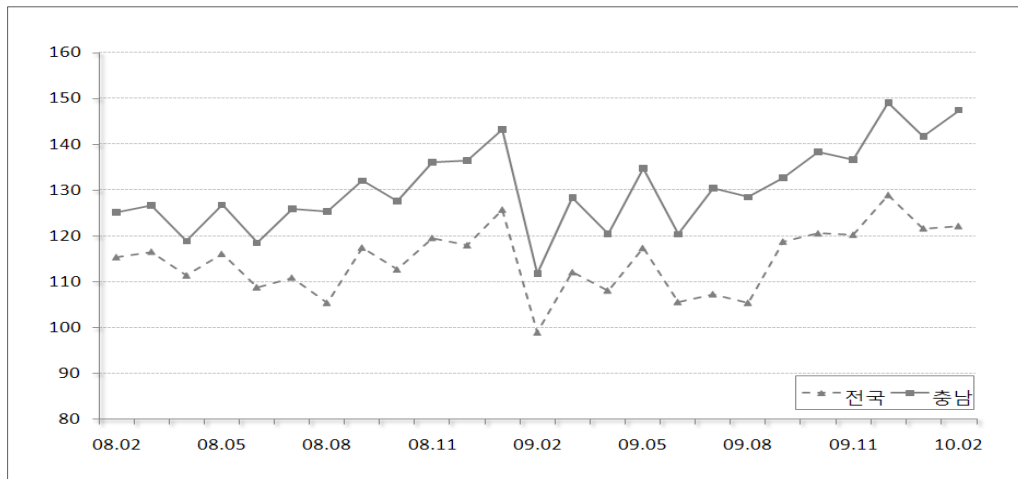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월	2009년		2010년		증감율	
		11월	12월	1월 ^o	2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3,773,120	4,654,969	5,019,943	4,747,824	4,790,281	27.0	0.9
충 남	121,730	147,437	163,918	157,986	169,324	39.1	7.2
대형소매점	71,135	87,789	96,501	91,910	96,162	35.2	4.6
대형마트	50,595	59,648	67,417	66,076	73,162	44.6	10.7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 2010. 3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17.5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7.4로 전월대비 6.2%, 전년동월대비 9.4%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1.3%, 19.8% 상승, 신선과일은 2.3% 하락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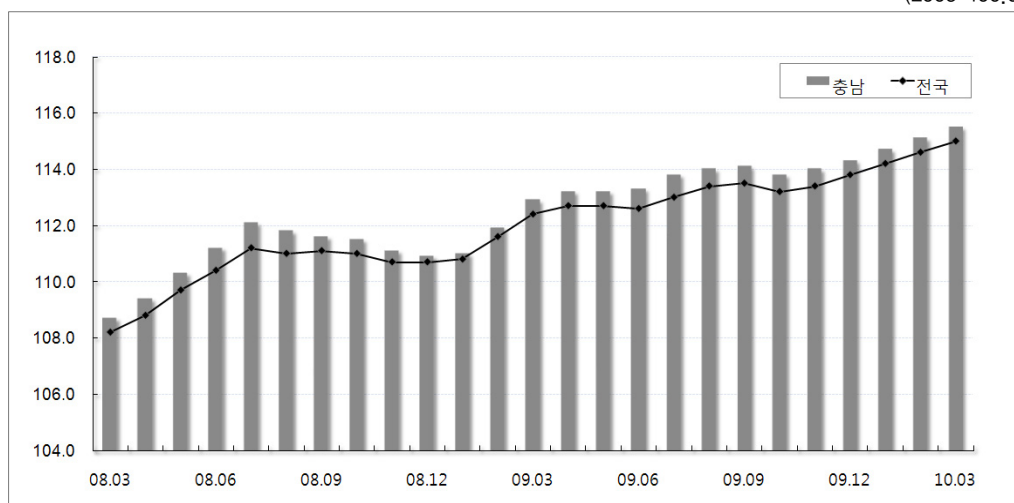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2.4	113.8	114.2	114.6	115.0	2.3	0.3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2.9	114.3	114.7	115.1	115.5	2.3	0.3
상품 상 품	112.7	114.7	115.2	115.8	116.3	3.2	0.4
	113.1	114.1	114.3	114.6	114.9	1.6	0.3
생활물가지수	114.3	115.9	116.4	117.0	117.5	2.8	0.4
신선식품지수	107.3	101.0	105.8	110.5	117.4	9.4	6.2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0. 2월 충남의 수출은 대중국수출 호조로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53.1% 증가(36억 52백만달러)하여 전월에 이어 큰 증가폭 유지 (+85.3%→+53.1%)
 - 평판디스플레이(+45.1%), 반도체(+86.4%), 컴퓨터(+52.6%)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0. 2월 충남의 수입은 유연탄 수입 증가로 전환, 원유,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보다 증가
 - 원유(+67.9%), 석유제품(+62.6%)등으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유지(+47.9%→+25.9%)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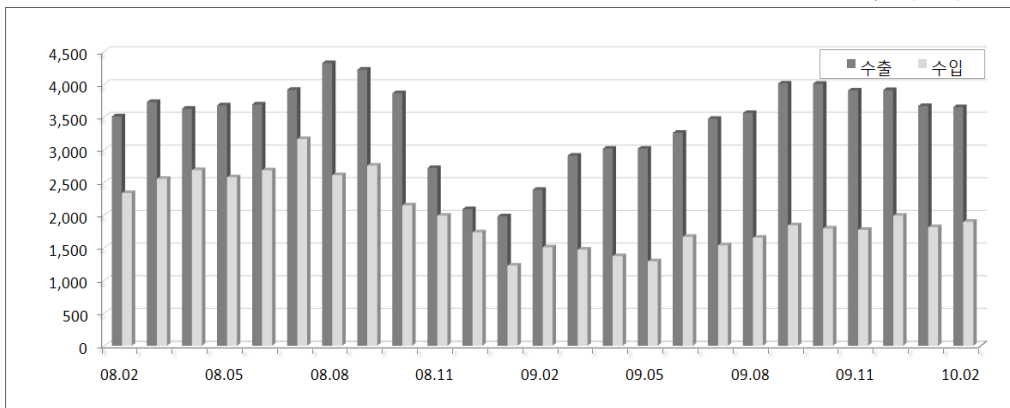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25,397	33,992	36,010	30,817	33,138	30.5	7.5
	수입	22,598	29,535	32,920	31,452	31,062	37.5	-1.2
	무역수지	2,799	4,457	3,090	-635	2,076	-	-
충남	수출	2,385	3,906	3,910	3,669	3,652	53.1	-0.5
	수입	1,506	1,774	1,990	1,815	1,896	25.9	4.5
	무역수지	879	2,132	1,920	1,854	1,756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2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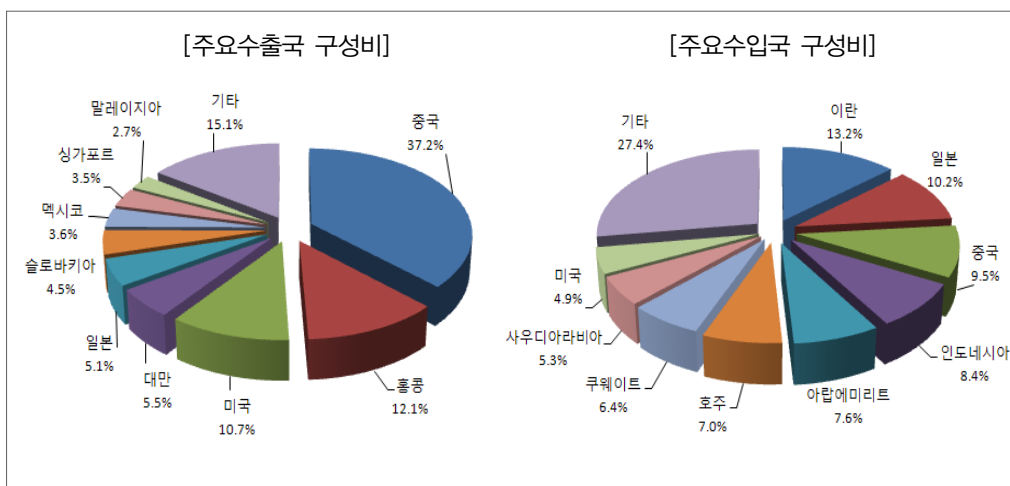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3,652	53.1	-0.5	100.0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5	45.1	-4.2	32.7
2	반도체	1,083	86.4	10.8	29.7
3	컴퓨터	154	52.6	-4.3	4.2
4	석유제품	146	3.0	-26.3	4.0
5	합성수지	141	28.9	-3.4	3.9

2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1,896	25.9	4.5	100.0
1	원유	692	67.9	-4.0	36.5
2	석탄	279	7.8	11.2	14.7
3	석유제품	274	62.6	5.0	14.5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4	9,197.1	68.8	2.8
5	합금철선철및고철	52	2,527.6	73.3	2.7

2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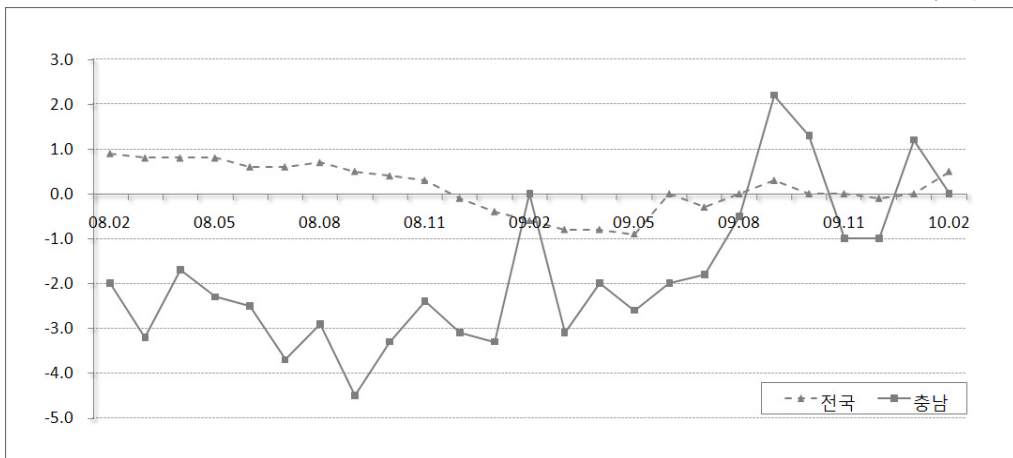
- 2010. 2월 충남의 15세이상 인구(+1.7%)와 경제활동인구(+1.4%)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 인구는 1,605천명으로 전년동월(1,577천명)보다 27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936천명으로 전년동월(923천명)보다 13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8.3%로 전년동월(58.5%)에 비해 0.2%p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 2010. 2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896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며, 전월대비 0.6% 증가
- 광업제조업(+8.6%)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3%)부문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3.3%)부문은 감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0. 2월 충남의 실업자는 40천명으로 전년동월(27천명)대비 13천명(+46.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3.0%)대비 1.3%p 상승한 4.3%

6. 금융

[수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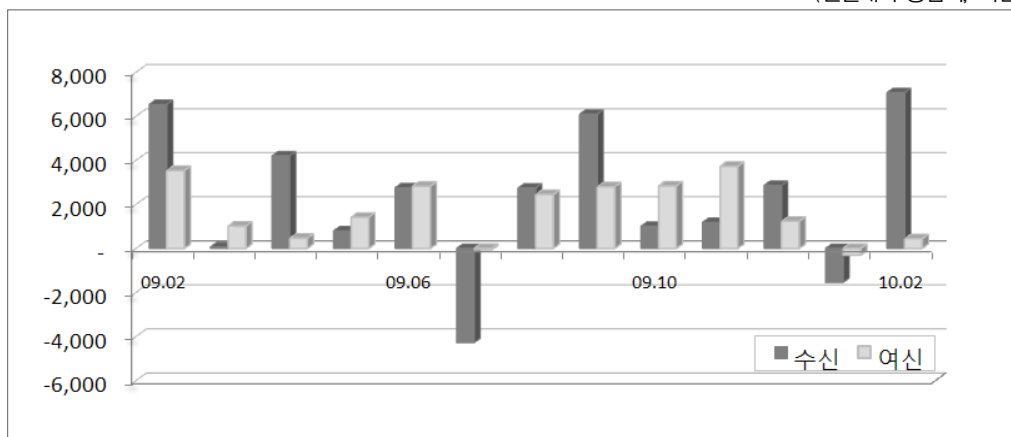
- 2010. 2월 충남의 수신은 정기예금 등 거치·적립식예금의 호조 지속 및 일부지역의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으로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 모두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 수신은 증가로 전환, 비은행기관은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 : 1월 -1,835억원, 2월 +6,670억원
 - 비은행기관 : 1월 +292억원, 2월 +405억원

[여신부문]

- 2010. 2월 충남의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비은행기관의 여신은 농업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의 확대로 증가로 전환
- 예금은행 여신은 증가규모 축소, 비은행기관은 증가로 전환
 - 예금은행 : 1월 +918억원, 2월 +70억원
 - 비은행기관 : 1월 -1,218억원, 2월 +370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부도율]

- 2010. 2월 충남의 부도율은 0.29%이며 전월대비 0.2%p 증가
 - 지역별로는 천안 0.49%, 홍성 0.11%, 논산 0.55%, 공주 및 서산 각각 0.00% 기록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0. 2월 충남의 건축허가 면적은 462천 m^2 로 전년동월대비(+17.9%) 및 전월대비(+15.5%) 증가세 기록
- 2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32.0%), 공업용(22.0%), 농수산용(13.0%)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391,595	495,128	1,156,021	399,707	461,775	17.9	15.5
주거용	167,401	85,924	606,294	68,921	147,870	-11.7	114.5
상업용	78,967	95,836	111,877	57,729	48,242	-38.9	-16.4
농수산용	18,348	43,311	83,762	39,356	60,009	227.1	52.5
공업용	47,193	146,847	170,431	144,748	101,739	115.6	-29.7
기 타	79,686	120,580	183,656	88,953	103,915	60.4	16.8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0. 2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10천 m^2 로 전년동월대비 79.5%, 전월대비 26.7% 증가하여 2009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2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0.2%), 주거용(18.6%), 상업용(13.4%)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274,115	927,808	474,932	323,545	409,905	79.5	26.7
주거용	65,763	149,298	70,890	115,980	76,185	15.8	-34.3
상업용	80,122	247,365	91,888	44,876	54,971	-31.4	22.5
농수산용	50,985	57,076	39,858	18,572	40,282	-21.0	116.9
공업용	33,812	125,434	181,255	71,387	123,758	266.0	73.4
기 타	43,433	348,635	91,041	72,730	114,709	164.1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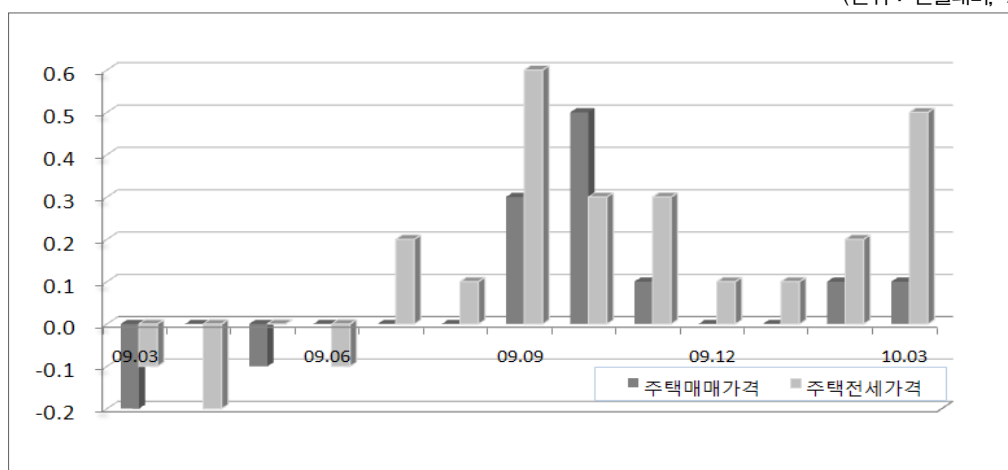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0. 3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상승폭 다소 축소
 - 2009. 9월부터 주택매매가격 전월비 증가세 유지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0.1% 상승
- 2010. 3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큰 폭 상승
 - 2009. 7월부터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0.5%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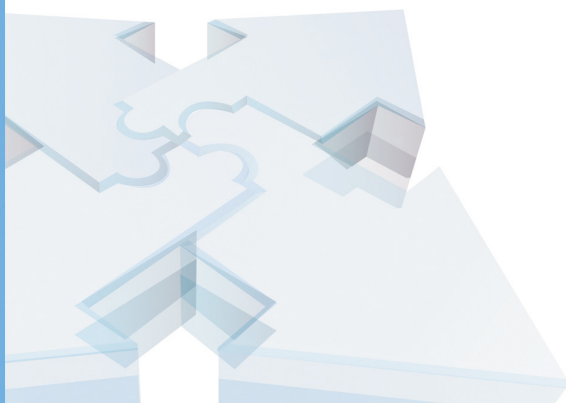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0.3.8]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건설사 대표 초청 합동간담회

-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구매 관련 35개 공공기관 및 13개 판매단체의 구매부서장 67명과 도청 신청사 등 도내 건설 중인 대형공사 시공사 대표 13명이 참석하여 공공구매 제도 정착 등 구매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협의
- ⇒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보 총력(금년 공공구매 목표 총 2조 850억원)

['10.3.11] 충남 문화산업 뉴리더 간담회

-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천안시 불당동)에서 도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오콘(뽕롱뽕롱 뽀로로 제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로부터 성공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기회 마련(지역특화 산업 육성, 문화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등 논의)

['10.3.15] 세계적 커피메이커 도토루(Doutor), 충남에 1천만 달러 투자

- 일본 도쿄(東京)의 도토루(Doutor)사 본사에서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정남균 아산부시장, 도리바(Yutaka Toriba) 도토루 사장과 함께 아산에 1천만 달러 투자협정 체결하고 아산테크노밸리에 공장 설립 약속
- ⇒ 신규고용 60명, 매출 800억원, 일본·중국 등 동남아시아 수출200억원 효과 기대

['10.3.16] 감성형 융합콘텐츠 분야 육성·발전 업무협약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설기환)과 실감미디어산업협회(협회장 안치득, 한국 전자통신연구원)가 첨단문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약속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기업 육성·지원, 기술 및 콘텐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업 정보 교류·자문, 각종 전시회·워크숍·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감성형(실감형)융합콘텐츠 국제 컨퍼런스와 워크숍·페어 등 실감형 콘텐츠 개발·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합의

['10.3.18] 충남 투자유치 홍보대사 위촉

- 프랑스 석고보드 업체인 LaFarge(라파즈社), Frederic Billon (프레드릭 비용, 54)씨를 추가 위촉하여 총 6명의 홍보대사가 신재생에너지 및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외자유치 홍보, 해당 산업분야별 투자정보 제공, 현장 및 자문활동 수행
- ※ 프랑스 석고보드 LaFarge社 Frederic Billon, 일본 석유화학 大山MMA社 Hiroshi Miki, 독일 산업용 가스 Linde Korea社 Brett Kimber, 미국 산업용 가스 MTG社 Mark Prusiecki, 영국 진공펌프 에드워드社 Gary Harte, 독일 반도체 업체 Infineon社 Matthias Ludwig

['10.3.18]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성과확산 비전 선포

-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광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화 충남도지사 대행과 기업인 등 500여명 참석, 충청권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 증대, 고용창출 등의 성과확산 결의(매출 2조 5천억원, 수출 20억달러, 신규고용 4천명 목표)

['10.3.18] 중소기업 지원시책 순회 설명회

- 한국폴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중소기업지원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아산시기업인 협의회 회원, 각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80여명 참석,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기술·인력지원, 수출 및 판로확충, 투자유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구축, 전략산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애로 상담 실시
- ※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3.22] 삼성미소금융재단 아산지점 개소

-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4층에 전국2호점을 개소하여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을 2.0~4.5%의 금리로 50만원~5,000만원까지 대출사업 시행

['10.3.23]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센터 개소

- 지난해 6월 충청권 ‘의약바이오 분야’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향대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관계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 개소식과 함께 의약바이오 포럼 개최
- ⇒ 의약바이오 복수 전공 과정을 신설하여 신약 개발 인력을 양성(의료생명공학과와 보건행정경영학과, 임상병리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등 12개 학과 참여)

['10.3.24] 충남 아산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개소

- 이인화 충남도지사 대행, 도의원과 기업인등 100여명이 참석,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193㎡)에 서울·인천·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개소
- 도내 기관별 취업 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공유,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등록과 알선,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역할 수행

['10.3.29] 공주 신평면에 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

- 공주 신평면 일대 48만㎡(15만평) 규모에 약 6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전자, 전기 관련 첨단산업단지 조성
- ⇒ 생산유발효과 약 1조2천5백 억원, 고용효과 2,800명 기대

['10.3.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 「World-yes 인재양성 허브」 프로젝트 추진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5개 지방자치단체와 순천향대 등 14개 대학 및 19개 실업계 고교의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 ‘인재양성 허브 프로젝트’ 추진 협약을 체결(국내 최초 학교·자치단체·정부기관 참여 41대 1 복합 협의체)
- 대학의 ‘대표 브랜드 사업’과 전문계고의 ‘중점 특성화 추진 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예정기업이 협의체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공급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각 교육기관별로 특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별 거점 교육기관 지정 최적화된 산업인력을 양성

['10.3.30] 브라질에 「충청남도 상파울루 무역관」 개소

- 이재관 충남도 투자통상실장, 황의승 국제관계 자문대사, 김순태 상파울루주 총영사, 최태훈 중남미 한상연합회장, 현지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국 지방자치 단체는 처음으로 브라질에 무역관 개소

⇒ 브라질과의 교류 확대, 건설자재·의료용기·축전지·안경렌즈·홍삼 등 수출 기대

['10.4.5] 기업애로전용 홈페이지(기업SOS충남넷) 오픈

- 온라인을 통해 기업애로신청, 처리상황 조회, 기업종합지원 정보 제공, 경제동향 등 기업정보 제공, 기업컨설팅의 서비스 제공(<http://giupsos.chungnam.net>)

※ SOS : Speed One-stop Solution의 약칭

⇒ 도, 시·군, 유관기관 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대

['10.4.7~4.12] 2010년 충청남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천안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42개 직종 571명의 선수가 참가 기능 경주
- 문화행사로 퓨전떡 만들기, 병천순대 제작 시식, 커피바리스타 등 개최
⇒ 입상자(1, 2, 3위)는 시험 없이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선수로 참가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10.4.9~4.11]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개최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동학사 봄꽃축제장에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 40업체(공산품 10, 공예품 5, 농수특산품 25)가 참여
- LED 다기능해충 퇴치기, 기능성 화장품, 미용제품, 칠기제품, 목공예품, 전통방식 약세사리, 홍삼제품, 한산모시젖갈, 조미 김 등 중소기업 제품 할인행사 개최
⇒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들의 중소기업 제품 품질에 대해 인식 제고 계기

['10.4.13] 기업애로해소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기관 간 기업애로협력체계 구축 등 업무협약 체결

['10.4.13] 충남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위원장) 등 위원 24명 참석 일자리 창출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계획 등 심의

['10.4.15] 디스플레이·산업소재부품 미니클러스터 창립총회

-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대표 100여 명 참석 광역클러스터 사업 및 지원기관 지원정책 설명회와 함께 창립총회 개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

① 지역희망금융사업(3. 17부터 시행)

- 대출규모 : 총 76억원(전국 2,000억원)
- 대 상 :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
- 대출한도 : 1인당 300만원 이내(금리 4%, 3년 이내 원금균등상환)
- 대출기관 : 도내 55개 새마을금고(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② 삼성 미소금융사업(3. 22부터 시행)

- 대출규모 : 아산지점 500억원(전국 3,000억원)
- 대 상 :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
- 대출한도 : 1인당 50만원~5,000만원(금리 2.0~4.5%, 5년 이내 대출)
- 대출기관 : 삼성미소금융 아산지점(041-541-8762)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로 문의(T.042-251-2673)

2010 지식서비스 바우처 사업

- 대 상 : 전략산업관련 기업(수요기관), 5개 분야 전문기업(공급기관)
- 분 야 : 디자인, 이러닝,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
- 사업비 : 7.2억원(국비 5, 민자 2.2)
- 방 법 : 신청기업은 자체부담금(바우처의 30%)을 충남테크노파크로 납부하고 바우처(5백만원~5천만원, 10종류)를 구매
- 신청 및 접수 : 2010. 4. 15(목)~4. 16(금), 충남테크노파크(041-589-0635)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전략산업과로 문의(T.042-606-5702)

201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서 업체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협약 체결업체, 최초 ISO시스템 인증 획득업체
- 분 야 : 제품인증(C60종), 시스템인증(6종) 등
- 지원액 : 도와 업체간 공동부담을 원칙
 - 제 품 인증 : 규격당 총 비용의 60%(최고 7백만원)
 - 시스템 인증 : 규격당 총비용의 40%(최고 2.5백만원)
- 신청서 접수 : 2010. 4. 7(수)~4. 21(수)까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경제정책과로 문의(T.042-220-3212)

2010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50개 업체 정도(과제당 500만원 이내)
- 분 야 : 제품 포장디자인, 기업체 홍보카탈로그 CI, BI 등
- 내 용 : 제품 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등 개발지원
- 사업비 : 100백만원(도 50, 한서대 제품표면디자인센터 30, 기업 20)
- 신청 및 접수 : 2010. 4. 5(월)~4. 19(월), 한서대 제품표면디자인센터
 - 신청서 배부는 충남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 또는 한서대 제품표면디자인센터(<http://www.psdic.co.kr>, 041-660-176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전략산업과로 문의(T.042-606-5701)

2010 수출기업육성사업 수탁사업자 모집

- 대 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충청도내에 등록·소재하는 '내수위주' 제조업체
- 내 용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해외마케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비 : 150백만원(30업체 内外)
- 설명회 : 2010. 4. 22(목) 15:00, 충청도청 영상회의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T.042-251-2455)

2010 동유럽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운영기간 : 2010. 10. 21(목)~10. 29(금), 7박9일간
- 참가신청 : 2010. 4. 5(월)~4. 23(금), 19일간
- 지 역 : 불가리아(소피아), 헝가리(부다페스트), 폴란드(바르샤바)
- 품 목 : 종합품목
- 모집규모 : 7개 업체 内外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T.042-251-2458)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중국의 출구전략과 시사점(746호)
 - 새로운 성장동력 : 신흥국 인프라시장(747호)
 -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748호)
 - 글로벌 경제위기 승자기업 7선(749호)
 - 경제행복지수로 본 한국경제(750호)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 항로의 활용가능성 점검(434호)
 -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435호)
 -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활성화 과제(436호)
 - 아시아 물시장 전망과 시사점(제437호)
 -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과제(438호)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미래 생각 웹 2.0+ 시대의 성공조건(1083호)
 - 플랫폼 천하평정을 향한 구글·애플·MS의 야망(1084호)
 - 2010년 양회(兩會) 결산 중국 경제 '구조개선'에 정조준(1085호)
 - 컨버전스 시대 다이버전스의 귀환(1086호)
 - 글로벌 R&D 개방·공유형으로 가고 있다(1087호)
 - 한국기업 자금운용 보수화 경향 뚜렷(1088호)
 - 포스코경영연구소(CEO 레포트) : <http://www.posri.re.kr>
 - Business TRIZ의 적용사례와 시사점
 - POST-Crisis 시대의 기업성공조건
 - 산업연구원(e-Kiet 산업경제정보) : <http://www.kiet.re.kr>
 - 중전기기산업의 만성적인 시험 적체 개선 시급(476호)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477호)
 -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 추세 둔화 실태와 시사점(478호)
-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287	—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5	—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47	—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1.1	—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
경제성장률	%	4.0	5.2	5.1	2.2	—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5	—
광공업		27.8	27.4	27.5	28.3	—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8	—
건설업		7.6	7.5	7.4	7.0	—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3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2	—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7	—
민간비중	%	30.5	32.5	34.4	30.6	—
정부비중		69.2	67.5	65.6	69.4	—
총자본형성	십억원	247,511	256,866	269,188	286,918	—
국내비중	%	19.3	18.3	16.7	16.5	—
국외비중		80.7	81.7	83.3	83.5	—
최종소비지출	%	65.9	67.7	69.0	69.1	—
민간비중	%	20.2	20.5	21.0	21.3	—
정부비중		79.8	79.5	79.0	78.7	—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4.1기준)

금리

구 분	'08말	'09말	'10.2말	3.30	3.31	4.1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3.02	2.01	2.02	1.99	1.99	1.99	0.00	△0.02
CD(91일),%	3.93	2.86	2.88	2.78	2.78	2.78	0.00	△0.08
국고채(3년),%	3.41	4.41	4.10	3.90	3.89	3.84	△0.05	△0.57
국고채(5년),%	3.77	4.92	4.62	4.56	4.52	4.46	△0.06	△0.46
회사채(3년, AA-),%	7.72	5.53	5.24	4.91	4.89	4.84	△0.05	△0.69

주가

구 분	'08말	'09말	'10.2말	3.30	3.31	4.1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124.47	1,682.77	1594.50	1700.19	1692.85	1719.17	1.55%	2.16%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2,692	42,856	32,018	48,206	48,473	57,329	8,856	14,473
KOSDAQ지수	332.05	513.57	507.03	518.05	515.74	519.19	0.67%	1.09%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80,648	301,051	△395	52,540	53,810	3,359	△50,451	

※ 기간중 : '08말('08.1.1~12.31), '09말('09.1.1~12.31), '10.2말('10.1.2~2.28), 4.1('10.4.1~3.1).

환율

구 분	'08말	'09말	'10.2말	3.30	3.31	4.1	전일비	'09말비
₩/US(종가)	1,259.50	1,164.50	1,160.00	1,130.10	1,131.30	1,126.40	+0.44	+3.83
선물환(NDF, 1개월물)	1,257.60	1,165.90	1,161.00	1,132.10	1,132.90	1,127.80	+0.45	+3.83
₩/¥100	1,396.81	1,264.52	1,298.99	1,222.79	1,213.58	1,204.45	+0.76	+4.99
¥/US	90.17	92.09	89.30	92.42	93.22	93.52	△0.32	△1.53
US/EUR	1.4093	1.4325	1.3587	1.3502	1.3405	1.3510	+0.78	△5.69
CNY/US	6.8506	6.8279	6.8265	6.8261	6.8261	6.8261	0.00	+0.03

※ '09년 평균 환율 : (₩/US)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S) 1,143.3원, (₩/¥100) 1,260.6원

※ 전일비(%) 및 '08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8말	'09말	'10.2말	3.30	3.31	4.1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1.43	0.25	0.25	0.25	0.25	0.25	0.00	0.00
T/NOTE(10년물)	2.21	3.83	3.59	3.62	3.61	3.61	△0.01	△0.22
DOW	8,776	10,428	10,067	10,325	10,404	10,406	0.76%	△0.23%
NIKKEI	8,860	10,546	10,198	10,126	10,172	10,222	0.49%	△3.08%
SANGHAI COMP	1,821	3,277	2,989	3,052	3,090	3,073	△0.53%	△6.23%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405	59	210	199	195	198	△4	136
CDS (bp, 5Y)	316	86	106	104	99	98	△5	13
CRS (% , 1Y)	1.10	2.25	1.70	1.60	1.60	1.58	△0.02	△0.67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8말	'09말	'10.2말	3.30	3.31	4.1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36.45	78.04	74.29	78.56	78.71	80.14	1.43	2.10
WTI 2월 선물 (\$/bbl)	50.57	79.36	79.66	82.37	83.76	84.87	1.11	5.51
원당(센트/파운드)	11.8	26.95	23.60	17.88	16.59	16.70	0.66%	△38.03%
밀 (센트/부셸)	611	542	519	472	451	455	0.95%	△16.01%
대두 (센트/부셸)	972	1,049	961	976	947	942	△0.53%	△10.16%
옥수수 (센트/부셸)	407	415	389	355	345	345	△0.14%	△16.89%
동 (\$/톤)	3,050	7,377	7,096	7,825	7,842	7,920	1.00%	7.36%
알루미늄 (\$/톤)	1,520	2,242	2,089	2,298	2,320	2,354	1.44%	4.97%
DDR2 1GB (\$/개)	0.73	2.57	2.38	2.96	2.94	2.94	0.00	0.37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6.11\$, (WTI) 78.98\$.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82,435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4	—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96	—
산업구조	—					—
농림어업	%	8.2	7.6	6.7	6.4	—
광공업		43.4	44.7	45.9	47.1	—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3.1	—
건설업		9.6	9.3	8.7	9.2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3	—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7 02	113.4	1.08	7.9	7.2	100.2	0.56
03	114.4	0.89	8.5	7.5	100.6	0.40
04	115.6	1.06	9.4	8.0	101.2	0.57
05	116.3	0.54	9.2	8.0	101.2	0.07
06	116.8	0.48	8.9	7.9	101.3	0.03
07	117.0	0.20	8.0	7.5	101.0	-0.24
08	117.6	0.49	7.7	7.4	101.1	0.07
09	118.3	0.60	7.7	7.4	101.3	0.20
10	119.2	0.76	7.9	7.5	101.7	0.38
11	119.8	0.44	7.4	7.4	101.7	0.07
12	120.4	0.52	7.1	7.2	101.9	0.16
2008 01	120.9	0.45	6.7	7.0	102.0	0.11
02	122.0	0.91	7.3	7.3	102.6	0.60
03	122.9	0.68	7.4	7.4	103.0	0.38
04	122.8	-0.07	6.1	6.6	102.6	-0.37
05	122.6	-0.13	4.9	5.7	102.2	-0.42
06	122.5	-0.09	3.8	4.9	101.8	-0.36
07	122.8	0.25	3.6	4.5	101.8	-0.00
08	123.2	0.32	3.4	4.2	101.9	0.08
09	123.1	-0.06	2.6	3.6	101.6	-0.30
10	123.6	0.35	2.6	3.4	101.7	0.13
11	123.3	-0.22	1.6	2.7	101.3	-0.44
12	122.0	-1.07	-0.8	1.2	100.0	-1.29
2009 01	120.0	-1.60	-3.9	-0.8	98.2	-1.79
02	118.5	-1.27	-6.1	-2.4	96.8	-1.44
03	117.4	-0.96	-7.3	-3.7	95.7	-1.12
04	117.0	-0.29	-7.2	-4.3	95.2	-0.47
05	117.4	0.35	-5.9	-4.2	95.3	0.15
06	119.3	1.61	-2.4	-2.7	96.7	1.35
07	120.9	1.36	0.5	-1.3	97.8	1.12
08	122.1	0.94	2.5	-0.2	98.5	0.73
09	123.6	1.22	4.9	1.4	99.5	1.01
10	124.7	0.89	6.6	2.7	100.2	0.68
11	125.7	0.81	8.0	3.9	100.5	0.34
12	126.3	0.51	8.7	4.7	100.8	0.29
2010 01	127.6	1.04	10.2	5.9	101.7	0.83
02	128.8	0.94	11.1	7.0	102.4	0.73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13,880	9.4	-	729,608	10.5	-
2008 4/4	249,295	17.6	6.0	171,820	22.5	-2.4
2009 1/4	244,944	10.3	-1.7	178,205	12.6	3.7
2/4	242,815	10.3	-0.9	174,293	13.0	-2.2
3/4	252,688	7.4	4.1	189,818	7.8	8.9
4/4	273,383	9.7	8.2	187,292	9.0	-1.3
2008 02	74,867	12.5	4.6	54,742	17.8	7.6
03	75,708	22.1	1.1	52,697	29.8	-3.7
04	71,452	12.9	-5.6	49,378	14.4	-6.3
05	76,955	20.9	7.7	53,386	24.8	8.1
06	71,812	25.6	-6.7	51,439	28.9	-3.6
07	76,640	24.1	6.7	57,696	27.6	12.2
08	76,872	19.9	0.3	59,216	18.9	2.6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91,284	27.6	6.1	68,632	34.9	13.5
02	71,135	-5.0	-22.1	50,595	-7.6	-26.3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3,908	9.5	8.4	64,356	11.5	13.8
08	82,884	7.8	-1.2	64,166	8.4	-0.3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2010 01	91,910	0.7	-4.8	66,076	-3.7	-2.0
02	96,162	35.2	4.6	73,162	44.6	10.7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8 4/4	111.2	4.6	112.6	4.4	94.8	-11.5	111.3	4.7	110.5	4.2	111.0	4.4
2009 1/4	111.9	3.8	113.0	3.0	104.8	3.0	112.1	3.9	111.2	3.2	111.9	4.0
2/4	113.2	2.6	114.8	1.6	107.5	10.7	113.5	2.7	112.1	2.0	113.1	2.7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08 03	108.7	4.1	110.8	5.3	99.3	-6.1	108.7	4.1	108.7	4.7	108.4	3.4
04	109.4	4.3	111.7	5.5	100.0	-5.7	109.5	4.3	109.0	4.7	109.1	3.9
05	110.3	5.1	113.1	6.7	98.7	-4.6	110.5	5.2	109.9	5.5	110.2	4.8
06	111.2	6.0	114.3	7.7	92.7	-7.6	111.4	6.1	110.7	6.2	111.1	5.7
07	112.1	6.5	115.2	8.1	96.7	-7.4	112.2	6.5	111.4	6.5	112.2	6.4
08	111.8	6.1	114.5	7.4	98.9	-5.1	111.9	6.2	111.1	6.0	111.9	5.9
09	111.6	5.5	114.0	6.2	98.2	-11.8	111.8	5.6	111.0	5.4	111.6	5.4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8 4/4	8,670	-36.2	-30.4	5,875	-24.8	-31.1	2,795
2009 1/4	7,273	-32.7	-16.1	4,204	-41.6	-28.4	3,069
2/4	9,287	-15.6	27.7	4,325	-45.6	2.9	4,962
3/4	11,043	-11.4	18.9	5,032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5.4	6,267
2008 02	3,508	6.9	-1.6	2,336	26.9	1.0	1,172
03	3,730	-2.1	6.3	2,555	21.9	9.4	1,175
04	3,627	-0.1	-2.8	2,687	19.5	5.2	940
05	3,678	-1.6	1.4	2,577	10.0	-4.1	1,101
06	3,693	-3.5	0.4	2,686	22.0	4.2	1,007
07	3,916	-6.4	6.0	3,163	43.5	17.8	753
08	4,325	1.8	10.4	2,609	35.3	-17.5	1,716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9	85.3	-6.2	1,815	47.8	-8.8	1,854
02	3,652	53.1	-0.5	1,896	25.9	4.5	1,756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7	1,547	1,021	998	23	2.2	64.5
2008	1,564	996	973	24	2.4	62.2
2009	1,588	991	961	29	3.0	60.5
2008 4/4	1,571	994	967	27	2.7	61.6
2009 1/4	1,577	929	900	29	3.1	57.1
2/4	1,585	1,021	988	33	3.3	62.4
3/4	1,592	1,020	991	28	2.8	62.3
4/4	1,598	992	965	27	2.8	60.4
2008 02	1,557	919	896	24	2.6	57.5
03	1,559	979	956	23	2.4	61.3
04	1,560	1,019	998	21	2.0	64.0
05	1,562	1,035	1,012	23	2.2	64.8
06	1,563	1,041	1,021	19	1.9	65.3
07	1,565	1,022	997	25	2.4	63.7
08	1,566	1,017	995	22	2.1	63.5
09	1,568	1,010	984	26	2.6	62.8
10	1,569	1,022	999	23	2.3	63.6
11	1,571	1,010	982	28	2.8	62.5
12	1,572	951	921	29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2.8	55.9
02	1,577	923	895	27	3.0	56.8
03	1,580	959	926	33	3.5	58.6
04	1,582	1,008	978	29	2.9	61.8
05	1,585	1,020	986	34	3.3	62.2
06	1,588	1,037	1,001	36	3.5	63.1
07	1,590	1,012	980	32	3.2	61.6
08	1,592	1,016	989	26	2.6	62.1
09	1,594	1,032	1,005	27	2.6	63.1
10	1,596	1,040	1,012	28	2.7	63.4
11	1,598	999	972	27	2.7	60.8
12	1,600	939	912	27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4.4	55.5
02	1,605	936	896	40	4.3	55.8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07 02	124,918	191,529	316,447	161,404	110,479	271,883
03	123,726	192,822	316,548	163,234	111,073	274,307
04	127,105	192,523	319,628	164,099	112,239	276,338
05	126,037	192,541	318,578	164,790	113,388	278,178
06	129,003	194,498	323,501	167,063	114,563	281,626
07	125,792	193,484	319,276	168,909	115,922	284,831
08	127,090	193,140	320,230	170,215	117,581	287,796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289	265,385	401,674	221,240	145,453	366,693
02	143,325	265,790	409,115	221,362	145,824	367,186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8 4/4	1.22	1.43	1.64	0.29	3.33	0.20
2009 1/4	0.44	0.70	0.27	0.13	0.66	0.01
2/4	0.11	0.22	0.06	0.73	0.38	0.00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08 02	0.29	0.26	0.01	0.10	1.20	0.37
03	0.28	0.22	0.01	0.04	1.18	0.45
04	0.29	0.34	0.35	0.11	0.04	0.21
05	0.32	0.52	0.23	0.05	0.04	0.06
06	0.57	0.76	0.54	0.45	1.81	0.01
07	0.26	0.21	0.57	0.24	1.00	0.06
08	0.85	0.81	2.29	0.16	0.82	0.27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호수	전년동 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8 4/4	43,338	-8.3	2,951,291	-26.7	1,311,090	-38.7	46,857	31.6
2009 1/4	76,140	36.5	1,626,922	-7.4	938,720	-35.6	51,526	15.5
2/4	77,357	35.2	1,777,754	-5.3	1,309,835	-1.9	51,231	2.7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08 02	14,870	-27.5	538,432	35.7	312,419	-29.3	14,888	102.2
03	25,124	51.3	728,610	0.8	520,869	-35.2	15,633	110.0
04	18,835	-1.8	832,681	29.9	609,271	6.8	16,227	96.7
05	19,625	14.0	460,003	-58.9	351,908	-50.3	16,910	83.9
06	18,739	60.2	585,106	13.4	373,960	13.0	16,750	49.0
07	18,862	61.2	723,613	-20.5	515,290	-27.7	16,646	55.5
08	13,922	-2.3	654,360	-5.4	373,723	-16.3	16,069	47.0
09	10,952	10.4	569,516	30.7	308,400	-0.6	16,186	47.6
10	16,759	30.9	742,487	-38.0	742,463	34.2	15,662	38.2
11	12,398	-26.4	814,228	-60.5	312,457	-70.1	15,277	32.8
12	14,181	-19.7	1,394,576	81.3	256,170	-52.6	15,918	24.7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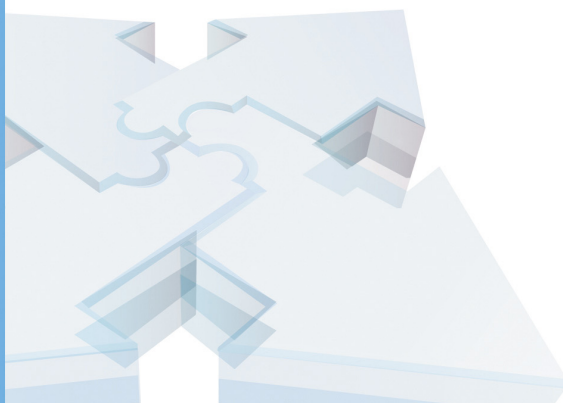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7 03	98.3	-0.5	-0.1	98.6	99.4	95.5	95.3	1.2	0.5	96.1	95.0	94.4
04	98.5	-0.5	0.1	98.5	99.9	95.2	95.5	1.2	0.2	96.2	95.3	94.7
05	98.5	-0.6	0.1	98.4	100.2	95.2	95.5	1.0	0.0	96.3	95.3	94.7
06	98.6	-0.1	0.0	98.3	100.3	95.2	95.5	1.3	0.0	96.3	95.2	94.7
07	98.5	-0.1	-0.1	98.3	100.2	95.2	95.8	1.8	0.3	96.4	95.5	96.3
08	98.7	0.5	0.2	98.1	100.7	95.2	95.9	2.0	0.2	96.5	95.7	96.4
09	99.0	1.0	0.4	98.1	101.5	96.0	96.3	2.1	0.4	96.7	96.4	96.4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7 02	712.5	1.08	132.3	1.28	103.6	4.20
03	723.9	1.60	133.3	0.71	102.8	-0.71
04	730.1	0.87	134.1	0.60	106.9	3.89
05	732.4	0.31	134.3	0.20	105.3	-1.44
06	732.0	-0.06	135.9	1.19	105.7	0.38
07	733.3	0.18	137.5	1.12	103.1	-2.48
08	736.6	0.46	138.7	0.89	104.9	1.73
09	738.9	0.31	140.3	1.14	109.9	4.77
10	740.2	0.18	142.5	1.57	114.3	4.00
11	739.4	-0.11	144.5	1.42	115.0	0.62
12	742.6	0.43	146.7	1.53	112.6	-2.12
2008 01	748.6	0.81	148.4	1.18	113.8	1.14
02	754.7	0.82	150.7	1.50	116.5	2.30
03	757.7	0.39	152.5	1.19	120.4	3.38
04	758.2	0.08	153.1	0.40	121.4	0.88
05	757.3	-0.12	154.9	1.21	121.6	0.15
06	761.0	0.49	157.0	1.31	122.3	0.57
07	763.2	0.30	157.3	0.19	123.0	0.57
08	767.6	0.57	158.3	0.67	124.2	0.94
09	765.0	-0.33	159.3	0.62	122.8	-1.14
10	767.5	0.32	160.6	0.85	124.2	1.14
11	767.0	-0.06	158.1	-1.59	126.9	2.23
12	767.4	0.05	150.9	-4.52	127.5	0.44
2009 01	758.5	-1.16	146.5	-2.95	126.7	-0.61
02	752.0	-0.85	144.0	-1.70	122.7	-3.21
03	740.6	-1.52	143.7	-0.20	123.7	0.82
04	741.1	0.07	144.8	0.72	122.9	-0.60
05	742.1	0.14	149.8	3.50	125.5	2.06
06	747.0	0.66	160.5	7.12	126.6	0.89
07	744.4	-0.34	171.5	6.83	128.3	1.36
08	745.1	0.09	180.7	5.41	128.4	0.09
09	749.6	0.60	188.9	4.54	129.4	0.76
10	752.1	0.34	194.9	3.15	129.1	-0.24
11	751.6	-0.07	198.8	2.03	130.9	1.42
12	746.7	-0.65	202.2	1.71	131.8	0.64
2010 01	747.0	0.03	205.0	1.35	135.0	2.46
02	749.7	0.37	206.2	0.61	138.2	2.40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7 02	2,190,394	1.21	3,832,605	1.57	1,912,232	0.44
03	2,210,285	0.91	3,910,123	2.02	1,941,541	1.53
04	2,239,428	1.32	3,949,638	1.01	1,990,517	2.52
05	2,263,615	1.08	3,993,533	1.11	2,071,958	4.09
06	2,283,235	0.87	4,054,187	1.52	2,106,915	1.69
07	2,303,622	0.89	4,142,124	2.17	2,097,878	-0.43
08	2,326,068	0.97	4,226,555	2.04	2,067,628	-1.44
09	2,352,706	1.15	4,268,199	0.99	2,024,161	-2.10
10	2,376,576	1.01	4,330,717	1.46	2,029,234	0.25
11	2,404,047	1.16	4,449,413	2.74	2,021,654	-0.37
12	2,428,815	1.03	4,567,917	2.66	2,041,531	0.98
2008 01	2,452,476	0.97	4,471,625	-2.11	2,028,178	-0.65
02	2,476,855	0.99	4,416,260	-1.24	2,087,105	2.91
03	2,504,556	1.12	4,299,592	-2.64	2,128,319	1.97
04	2,513,878	0.37	4,164,586	-3.14	2,104,635	-1.11
05	2,531,723	0.71	3,989,558	-4.20	2,073,894	-1.46
06	2,544,883	0.52	3,766,086	-5.60	2,018,746	-2.66
07	2,564,587	0.77	3,708,526	-1.53	2,036,918	0.90
08	2,575,844	0.44	3,735,533	0.73	2,009,331	-1.35
09	2,581,604	0.22	3,793,343	1.55	1,995,850	-0.67
10	2,608,533	1.04	3,831,981	1.02	1,964,275	-1.58
11	2,599,474	-0.35	3,769,763	-1.62	1,956,497	-0.40
12	2,566,561	-1.27	3,625,334	-3.83	1,912,615	-2.24
2009 01	2,549,114	-0.68	3,502,779	-3.38	1,787,427	-6.55
02	2,533,707	-0.60	3,332,121	-4.87	1,740,354	-2.63
03	2,520,530	-0.52	3,255,402	-2.30	1,673,066	-3.87
04	2,516,291	-0.17	3,241,820	-0.42	1,608,384	-3.87
05	2,526,444	0.40	3,323,442	2.52	1,520,292	-5.48
06	2,573,991	1.88	3,512,169	5.68	1,508,080	-0.80
07	2,606,810	1.28	3,708,731	5.60	1,525,056	1.13
08	2,638,797	1.23	3,856,513	3.98	1,503,246	-1.43
09	2,676,826	1.44	3,957,885	2.63	1,520,593	1.15
10	2,713,674	1.38	4,079,898	3.08	1,534,191	0.89
11	2,762,826	1.81	4,204,614	3.06	1,551,118	1.10
12	2,814,553	1.87	4,360,569	3.71	1,559,523	0.54
2010 01	2,889,553	2.66	4,463,759	2.37	1,604,846	2.91
02	2,959,247	2.41	4,540,931	1.73	1,641,118	2.26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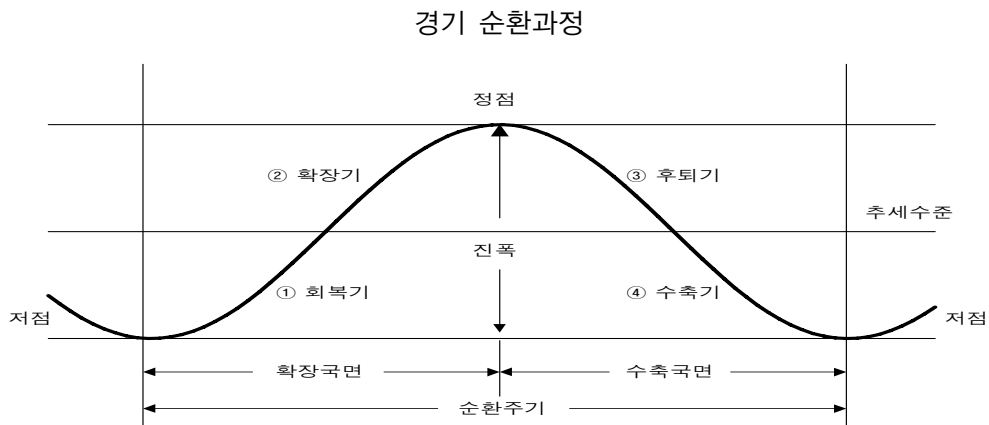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을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text{구성지표}), \quad t = 2, 3, \dots, T(\tex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quad (\text{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0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199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www.baekje.org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2010 세계대백제전
201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2010 09
18
-
10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대충치박물관의해

Korea
Sparkling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
공주시 (웅진)

56년을 이어온 사랑, 벨금속



Since 1959
Professional Quality
Nano Bell 나노벨(은나노 항균) 손톱깎이의 효능

일반 손톱깎이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손톱 발톱 밑에 있는 세균으로 제품이 오염되어 다양한 2차 염증 및 감염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은나노 항균 손톱깎이는 각종 유해균, 곰팡이 균, 무좀균, 알레르기성 균 등에 번식하는 세균을 억제하고 살균 소독작용을 합니다. 이 제품은 인체에서 분리되는 땀, 노폐물 등으로 인해 번식하는 세균의 증식을 원천적으로 막아 줄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균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서울 사무소 : 02)3487-8641~3 천안본사/공장 : 041)568-5220 홈페이지 : www.bellmetal.com 쇼핑몰 : www.design-gift.co.kr

위 기업은 1999년 충청남도가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